
2023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3 ANNUAL REPORT

2021
2022
2023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CONTENTS

I 연구소 소개

- 006 설립목적
- 006 주요기능
- 007 경영목표(2021~2023)
- 008 연혁
- 010 조직도
- 011 일반현황

II 2023년도 주요 연구

기본연구

- 014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고용 추이 및 처우개선 방안
- 016 영아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 영아 유기를 중심으로
- 018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 020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II):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중심으로
- 022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서비스 질 제고 방안 연구
- 024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실태
- 026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 028 영유아 데이터 통합 현황과 개선 방안
- 030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032 부모의 선택권 보장과 기관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유치원 운영 다양화 연구

일반연구

- 034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036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II):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지원 방안
- 038 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추이분석 및 대응 방안(II):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인프라 중심으로
- 040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 방안 연구(II)
- 043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I): 실행과제 도출과 성과지표 개발
- 046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II)
- 048 미래환경 대응 유치원·어린이집 조성방안 연구(II): 영유아교육분야 SW·AI 활용방안
- 050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 지원 종합 대책 방안(II): 부모용 도구 개발 및 가족 지원 방안
- 052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3 (한국아동패널 II)
- 054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3 (Korean ECEC Panel Study)

수시연구

- 056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련 지방 단위 업무 분석
- 058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분석 및 이관 방안
- 060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 비용 지원 중심으로
- 062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 도입 방안 연구
- 064 장애영유아 국가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방안
- 066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환경 조성 방안
- 068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 07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III 2023년도 주요 활동

주요 행사

- 074 육아정책 심포지엄
- 075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 076 KICCE 정책토론회
- 079 국제세미나 및 간담회
- 081 한국아동패널 및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학술대회
- 082 정책세미나 및 포럼
- 084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을 위한 연구 포럼
- 085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구축 포럼 및 워크숍
- 086 유관기관과의 공동 개최 학술행사
- 088 KICCE 육아정책 DATA 콜로키움
- 089 업무협약

주요 간행물

- 090 육아정책포럼
- 092 육아정책 Brief
- 093 Issue Paper
- 094 KICCE Policy Brief
- 095 육아정책연구
- 097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IV 2024년도 추진계획

2024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 104 2024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 105 중점연구사업

2024년도 사업개요

- 106 기관고유사업
- 108 일반사업
- 110 2024년 연구사업 총괄표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육아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저출생 문제가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기로 대두한 2005년에 설립된 이래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보육, 교육, 출산, 육아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로써 미래 세대의 행복한 성장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힘써 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의 발전, 기후 변화, 경제 변화, 인구 구조 변동 등 거대한 변화가 몰려오는 대전환의 시기에 있습니다. 또 유례없는 초저출생 현상으로 ‘아이 없는 세상’이 사회와 경제에 가져다줄 부담에 따른 불안이 확산하고 있으며, 국가 지속성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 연령대 인구가 20만 명 초반인 사회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 육아정책을 선도해 온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전환의 시기 이후 도래할 미래 사회의 국가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과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3년에는 아동 생애주기별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육아정책 전반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고 아동 권리 의식을 제고하는 정책 의제를 발굴하여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영아 유기 예방, 사회·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정책 대상을 태내기과 신생아기 가정으로 확대하고, 아동 생애주기에 기반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였습니다. 미래 대응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선도적 정책 연구 강화 전략으로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 연구와 영유아교육 분야 SW, AI 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현장 실천 연구를 확대하여 교사 고용 추이 및 처우 개선 방안,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부모의 선택권 보장과 기관의 운영 합리성 제고를 위한 유치원 운영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성 근로자의 돌봄권 보장, 청소년 부모 양육 역량 지원, 장애 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 및 발달 지원, 긴급 돌봄, 영유아교육·보육 지원 인프라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가정에서의 양육 역량 강화, 육아친화적 사회를 조성하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보통합’이라는 국가과제의 이행을 돕고자 특임 조직인 유보통합추진지원단을 신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사회적 이슈와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하여 육아정책 심포지엄, 육아정책 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KICCE 정책토론회, 학술대회,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부부처와 학계, 현장 전문가, 국민과 소통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내외 학술지를 발간함으로써 육아정책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육아정책 Brief, 육아정책포럼, 이슈페이퍼 등 정책 현안에 관한 다양한 간행물과 카드뉴스, 숏폼, 영상보고서 등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여러 채널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였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지난해 노력에 주목하여 주시고, 앞으로 추진하는 연구와 각종 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연구가 따뜻하고 생산적인 미래 사회의 기틀을 다지고 ‘더 건강하고, 더 재미있고, 더 즐거운 아동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장 **황 옥 경**

P A R T

I

연구소 소개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 육아지원 정책연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으로
한국 육아정책의 Think Tank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

주요기능

-

경영목표(2021~2023)

-

연혁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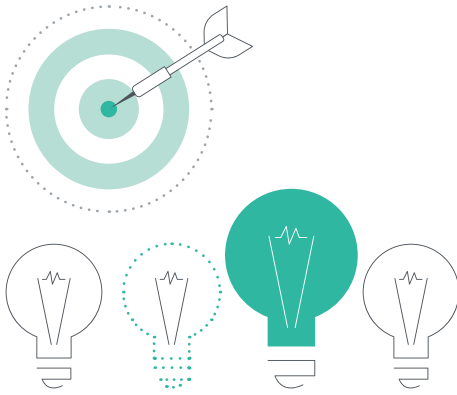
-

일반 현황

PURPOSE OF ESTABLISHMENT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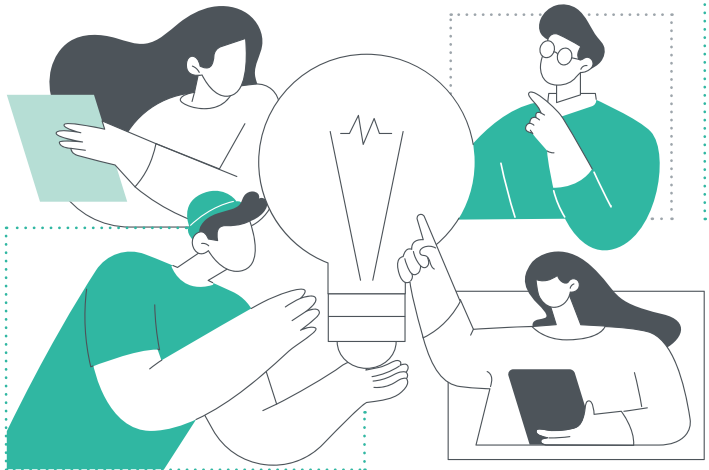
국가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 연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적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육아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



MAIN FUNCTION

주요기능

1. 육아 관련 현안 및 정책방안 연구
2. 육아지원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육아지원인력 자격제도의 관리 및 교육훈련
4. 육아정책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5. 육아정책 관련 주요 사항 연구
6. 정부의 육아정책사업 지원



MANAGEMENT GOALS

경영목표 (202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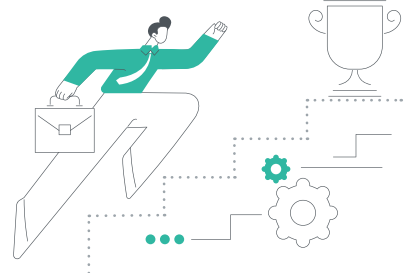
설립목적

종합적 육아정책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육아선진국
도약에 기여



비전

미래인재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육아정책연구의 허브



중장기 발전목표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연구 선도

국내외 의제에
대응하는
육아정책연구의
플랫폼 실현

포용적
경영혁신을 통한
기관 위상 제고

【경영목표】추진전략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연구 선도

- 아동 권리와 생애주기에 기반한 연구영역 확장
- 미래대응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선도적 정책 연구 강화
- 육아친화적 가정 및 사회 조성을 위한 연구 주도
- 정책화 기여도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 관리 체계 개선

국내외 의제에 대응하는 육아정책연구의 플랫폼 실현

- 포스트코로나 대응 국내외 육아정책 플랫폼 활성화
- 정책수요자와의 소통 강화 및 성과공유 다각화
- 학제 간 융합과 협력을 통한 육아정책연구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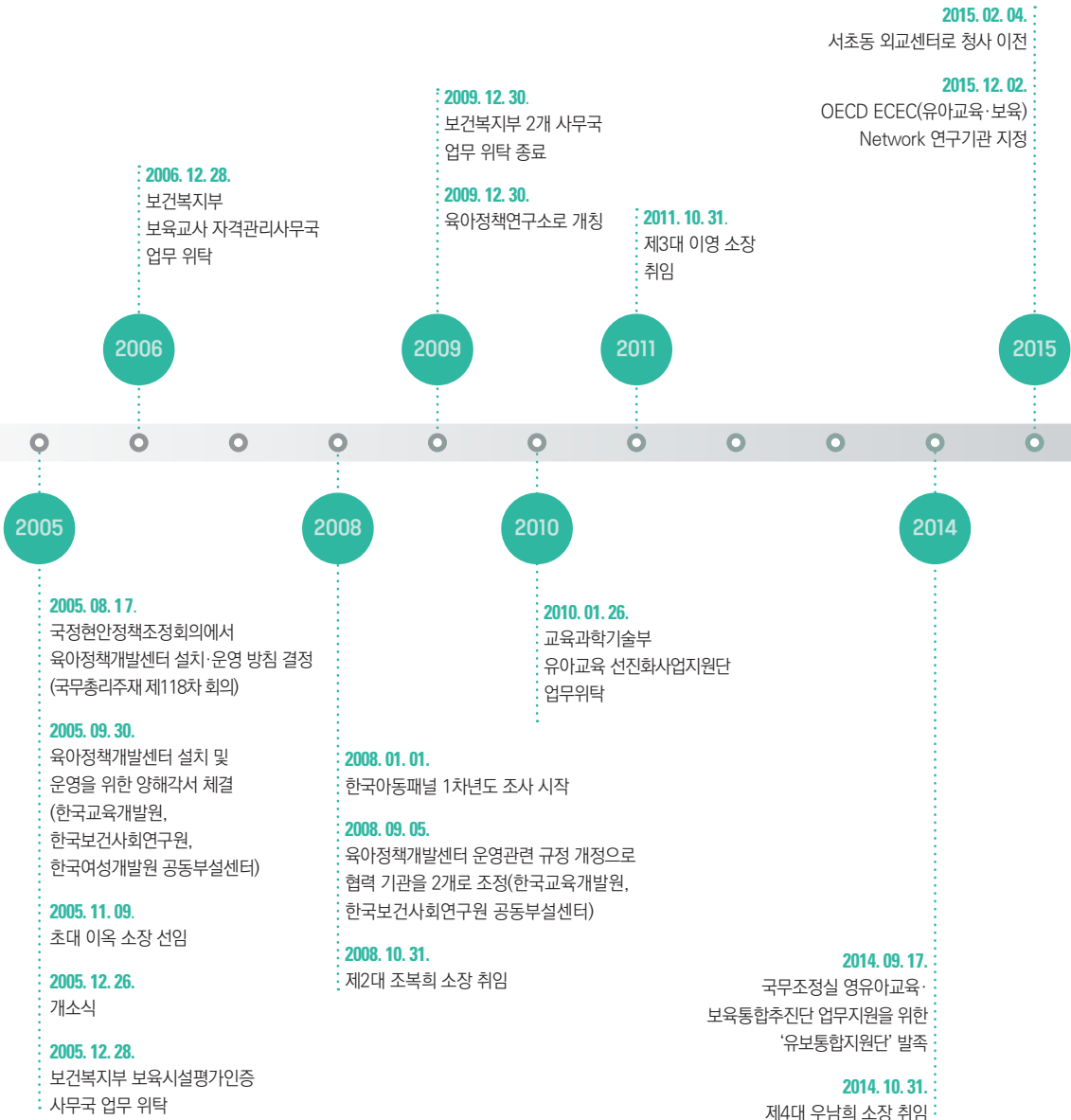
포용적 경영혁신을 통한 기관 위상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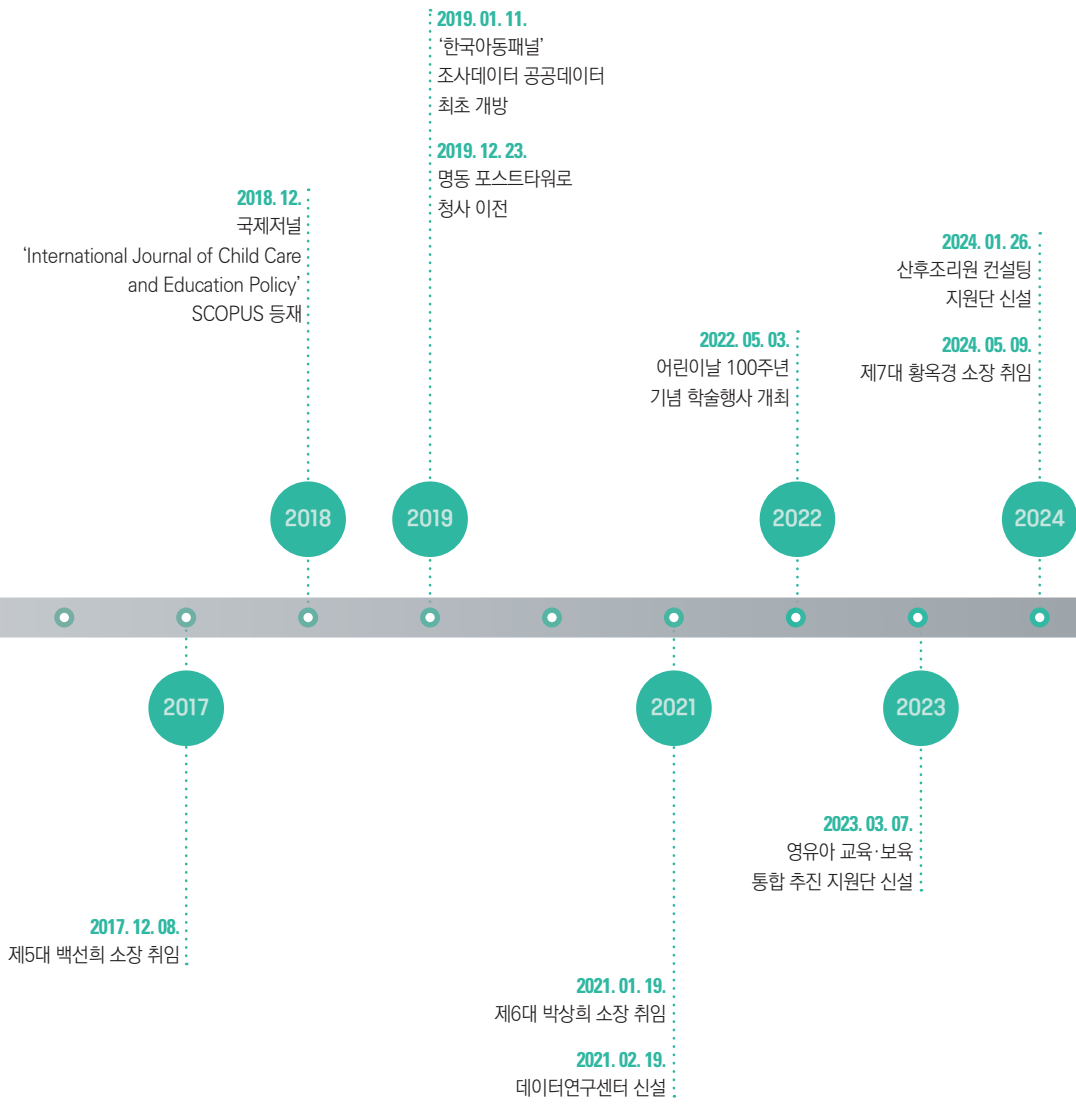
- 법인화 추진과 인권·윤리경영 강화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포용적 조직문화 강화
-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관리 효율화

HISTORY

연혁

육아정책의 발전과 영유아의 행복을 위해 지난 19년간 힘차게 내딛어온 걸음,
국가미래를 향한 도약은 계속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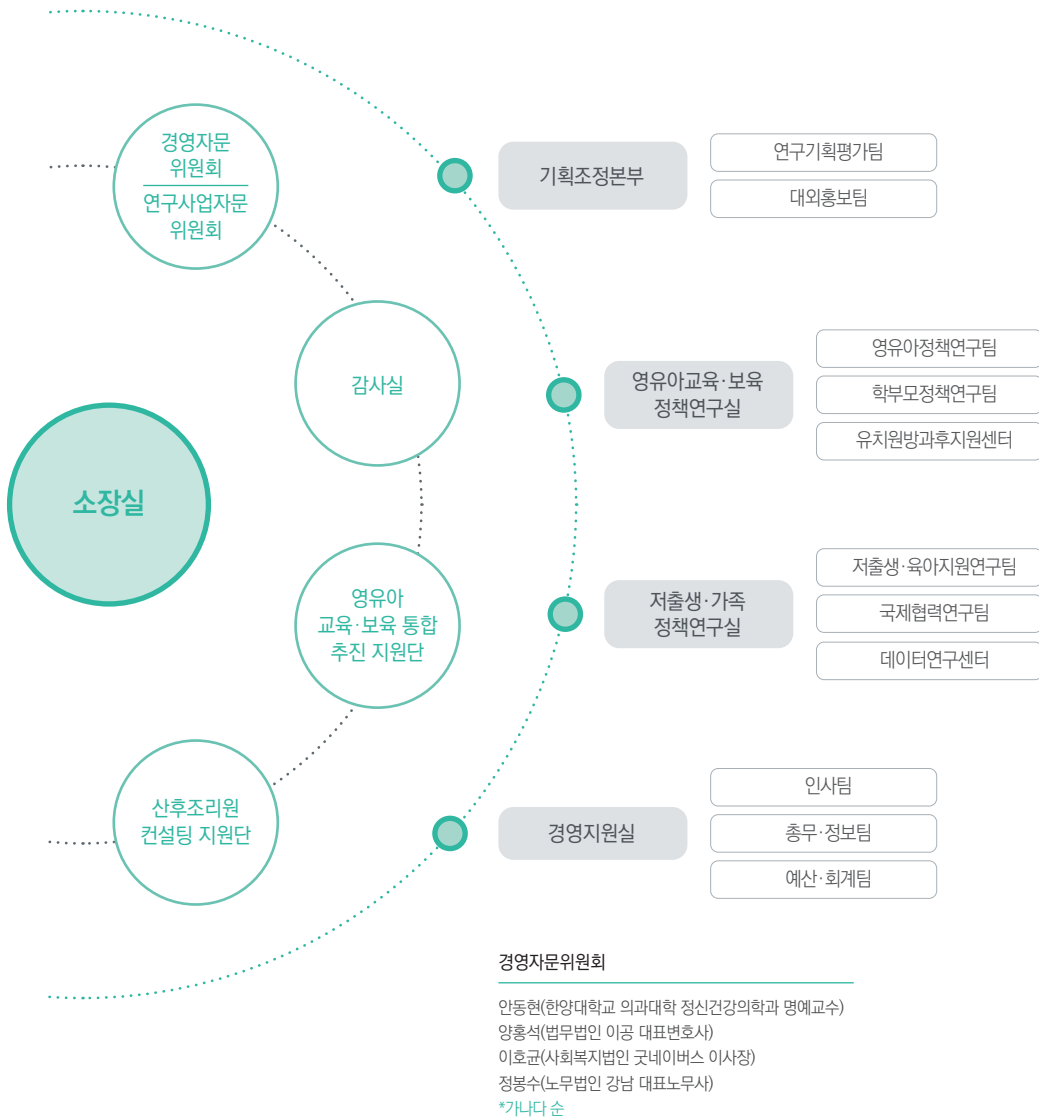




ORGANIZATION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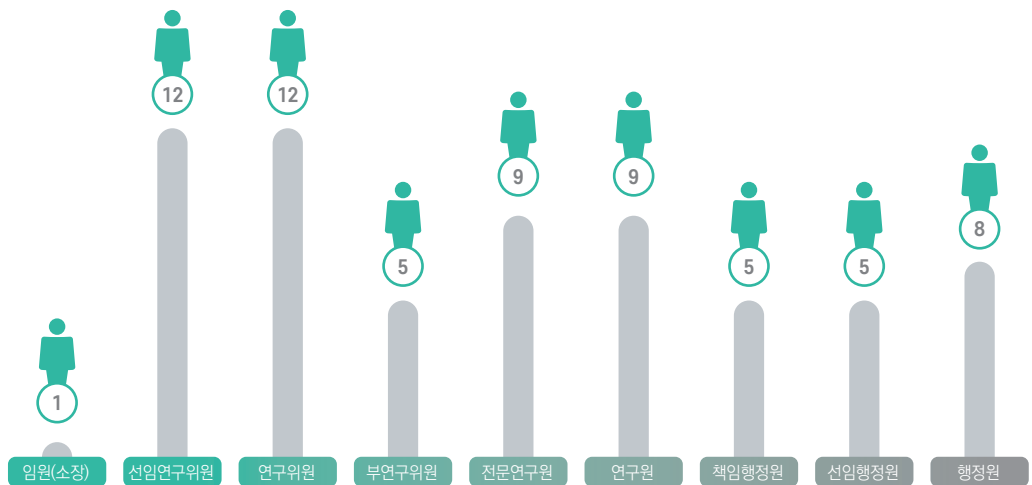
연구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유아정책연구소는 **1본부, 3실, 9팀, 2센터, 2단**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GENERAL 일반현황

인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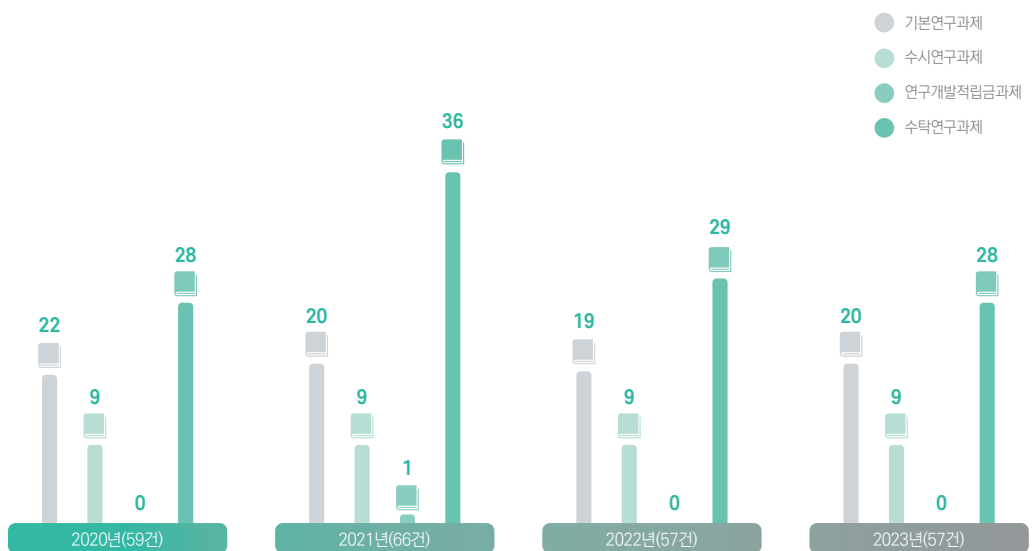
*전체 66명 | 단위: 명



*2024.5.31 기준

연구현황

*연구시작일 기준 |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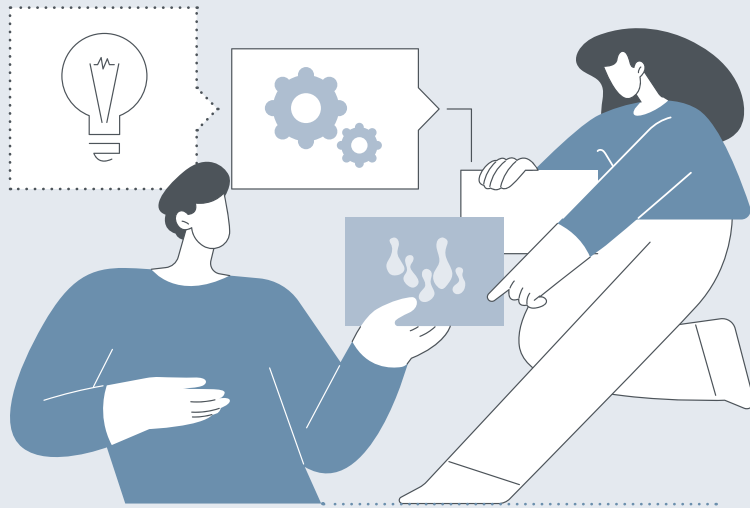


P A R T

II

2023년도 주요 연구

국가 육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보육 관련 기본, 일반, 협동, 수시,
연구개발적립금, 수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연구
-
일반연구
-
수시연구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고용 추이 및 처우개선 방안

양미선, 최은영, 조용남, 윤소정

배경 및 목적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전 생애적 경력 개발과정을 파악하여 경력에 따른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연구방법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관련 법 및 제도, 국고 예산, 지자체 특수보육시책 및 지역교육청 인건비 지원 사업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함.
-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담임교사 또는 부/비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어린이집·유치원에 현재 근무하거나 유사 직종으로 이직한 교사를 대상으로 FGI 심층면담을 실시함.
- 관련 전문가, 부처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함.

연구결과

- 어린이집 교사의 어린이집 경력은 평균 94.5개월이고 유치원 경력은 평균 46.5개월임. 자격 취득 후부터 현재 재직 기관까지 이직한 횟수는 교사 1인당 평균 2.5회임.
 - 최초 취업한 기관은 어린이집 80.7%, 유치원 19.3%임. 최초 취업한 기관에서 이직한 경우 취업한 기관은 어린이집이 대부분이며, 자격 취득 후 유치원에 취업한 교사들도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점차적으로 늘어남.
 - 교사 자격 취득 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집과의 거리 48.4%, 급여 36.8%, 기관 유형 33.1%, 원장/원감의 교육·보육 철학 25.1%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이직한 주요 이유로는 업무 부담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원장과의 갈등, 이사, 결혼 등으로 집과의 거리 문제 등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교사 중 절반 정도인 56.5%는 이직 계획이 없지만, 나머지는 이직을 고민 중이거나 계획 중임.
 - 정책요구 분석 결과,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 권익보호 및 분쟁 발생 시 공신력 있는 대응 창구 마련, 사회적 인식 개선 통한 직업 지위 향상, 교사 권리보장 위한 법 및 제도 마련, 교사 신분 보장, 초과근무 시 지원 및 적정 임금 보장, 휴게시간 보장 등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나타남.



- 이직 결정요인 분석 결과, 교사 경력의 길어지면 이직할 확률이 1.41배 증가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높아질 경우 이직할 확률이 0.8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 교사 경력은 평균 49.3개월, 어린이집 교사 경력은 평균 12.3개월임. 자격 취득 후부터 현재 근무하는 기관까지 이직 횟수는 교사 1인당 평균 1.6회임.
 - 최초 취업한 기관은 유치원 75.9%, 어린이집 24.1%로 유치원이 3배 정도 많음. 첫 취업 기관에서 이직하여 유치원으로 가는 경우가 94.1%로 다수를 차지하고, 5.9%는 어린이집으로 기관을 옮김.
 - 교사 자격 취득 후 기관 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업무량과 급여, 기관 유형, 집과의 거리, 원장/원감의 교육·보육철학과 유아반 담임조건, 시설환경, 친구 및 지인 재직 여부와 기관 평판 순임.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 취득 후 처음 취업한 기관에서 이직 시 주요 이유는 업무 부담, 이사, 결혼 등으로 집과의 거리 문제, 급여 불만, 원장과의 갈등, 건강 문제 순임.
 - 유치원 교사 중 다수인 70.3%는 이직 또는 사직 계획이 없지만, 나머지는 이직을 고민 중이거나 계획 중임.
 - 정책요구 분석 결과, 권익 보장 법 및 제도 마련, 초과근무 수당 및 적정임금 보장, 교사 권익보호 및 분쟁 발생 시 공신력 있는 대응 창구 마련,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직업 지위 향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교사의 신분 보장, 급여 산정 시 경력 인정 제도 마련, 보조인력 지원 확대, 교육과정 이후 돌봄전담인력 배치 등의 정책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직 결정요인 분석 결과,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이직할 확률이 13.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 제언

- 아동 중심, 놀이 중심의 보육·교육을 위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 일과 삶 균형을 위한 근무시간과 휴가 보장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급여 보장
- 교사가 보육·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확대
- 교사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권리 구제 체계 마련
- 어린이집·유치원 조직 문화 개선

영아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 영아 유기를 중심으로

김자연, 박은정, 최윤경, 차선자, 유수경

배경 및 목적

- 유기 현황과 사례, 관련 정책과 법안의 쟁점 사항과 논의를 통섭하여 영아 유기 예방과 사후관리 개선 방안을 검토함.
- 영아살해죄 폐지와 2024년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른 위기 임신부 발굴 및 지원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과 대응책, 정책 추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 연구 및 2차 자료 수집·분석: 연령별 아동학대에 대한 의학적·사회학적 기준을 탐색하고 아동학대 및 보호 아동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을 통한 실태 분석
- 국내외 법제도 분석: 영아 학대 및 영아 유기 관련 현재의 우리나라 법제도 분석과 국외 영아 유기 예방 관련법과 제도 검토
- 심층면담: 집단 및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과 자료 수집
- (온라인) 전문가조사: 여러 분야의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 대상으로 영아 학대 및 영아 유기 예방·사후관리 의견조사 수행
- 정책토론회 및 전문가 자문: 영아 유기와 관련된 쟁점 사항과 정책 방향에 대해 부처, 학계, 국회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영아 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으로 영아 유기 예방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연구결과

- 영아 유기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 영아 유기 관련 보도 자료를 활용하여 규모 및 발생 시기 등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함. 영아 유기는 출산 직후와 출생 이후 1개월 미만인 신생아 시기에 주로 발생하며, 출산 직후 유기된 경우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확인함.
 - 임신-출산-양육 단계에서 정책 지원 강화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원인 및 인구학적 특성관련 자료수집의 중요성을 확인함.
- 아동보호 체계 내 영아 유기 대응 체계 검토
 -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서비스 지원 노력이 미비함. 영아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호 필요 영아는 '가정형 보호조치'에 우선성을 두고 보호조치 기관(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지원확대의 필요성이 있음.
- 영아 유기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법령 분석
 - 형법상 영아유기죄와 영아살해죄, 아동학대처벌법, 모자보건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감염병예방법, 아동복지



법,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고 각 법령에서 영아 유기 예방 방안 검토 및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 국외 영아 유기 예방 관련법과 제도 검토
 - 여러 국가가 영아 유기 및 살해를 예방하고 출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베이비박스과 비밀출산을 허용함.
 - 그러나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법률과 제도 마련의 근거 기반이 취약한 현황으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확인함.
- 영아 유기 예방 및 보호 체계 개선 방안 전문가 의견조사
 - 영아 유기 예방 방안 관련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는 ‘위기·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47.8%), ‘위기·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녀 돌봄 지원 강화’(25.0%), ‘위기·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 안정 강화’(10.9%)의 순임.

정책 제언

-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 영아 연령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동복지법 또는 영유아보육법상에 보완될 필요성을 제안
 - ‘영아 유기’의 개념적 정립의 필요성과 아동 건강증진 관련 법령의 행위조력자 규정의 보완을 제안
 - 부모교육 확대를 통한 아동학대 감수성 확대와 지역사회와 기관 등의 연계를 통한 감시체계의 강화 필요
 - 위기·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지원 및 자녀(영아) 돌봄 지원 강화와 주거안정 강화
-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미혼모(한부모) 가구 정책 지원 체계화, 가정 양육 지원 강화, 베이비박스에 대응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 제안
 -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른 운영전략, 맞춤형 수요 대응, 위기·취약가구 발굴을 통한 지원체계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성 제안
- 영아 유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 아동학대 분류 체계에서 영아 유기 분류 기준안 마련과 아동 중심의 정책지원을 위한 통합적 자료 구축 제안
 - 영아 특성을 고려한 가정 보호 지원 강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과업 제안(가정 보호 행정 지원 강화, 가정 보호 양육 역량 강화, 장애 영아 가정 보호 체계 구조화, 가정 보호 지원 체계 네트워크 강화, 입양제도의 국가책임성 강화)
 - 장애 영아 전담 시설 및 전담 인력 양성의 필요성 제안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김지현, 조숙인, 김영민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 및 영유아 시기의 이른 학습 노출 등으로 인해 영유아, 초등학생의 자연스러운 사회적 놀이 경험 부족으로 정서발달 문제와 우울증 등 심리건강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음.
- 본 연구는 최근 마음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아동의 정서적 건강과 아동이 아동답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영유아, 초등저학년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위해 가정, 보육·교육기관, 지역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사회·정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연구방법

- 부모 대상 조사: 가정에서 사회·정서발달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우려를 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영유아 부모 708명, 초등저학년 부모 각각 704명 총 1,412명을 대상으로 부모 대상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였고, 영유아 부모 6명, 초등저학년 부모 6명 총 12명 대상 심층면담 실시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회·정서발달 담당자 대상 조사: 지역사회에서 영유아 가정과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현황 분석
- 면담 및 자문: 영유아와 초등저학년의 사회·정서발달 지원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정서발달 관련 전문가, 임상심리 상담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드림스타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 Wee센터, 초등학교 상담전문교사, 교육복지사 등 총 30명 이상의 전문가와 면담 및 자문 진행

연구결과

- 사회·정서발달 지원에 있어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정서발달의 어려움에 따라 1차지원(모든 아동대상), 2차지원(잠재위기아동), 3차지원(위기 아동)으로 분류하여 해당되는 서비스를 파악하는 분석틀을 마련함.
- 사회·정서발달 위기정도에 따른 지원대상별, 연령별 서비스 지원사업을 분석하여 제시한 결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차지원을 진행해야하는 기관들이 사회·정서발달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1차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초등저학년의 경우 1차지원체계가 부족한 점이 나타남.



- 전국 130여 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11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0%가 부모 사회·정서 발달 관련 양육 상담을 진행하였고, 58.8%가 영유아 사회·정서 발달 관련 참여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사회·정서 발달 증진사업 담당자는 37.5%(복수응답)가 비상근 상담사가 있었고, 31.3%가 상담전문요원, 30.4%가 보육전문요원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함.

정책 제언

- 영유아 시기 사회·정서행동검사 의무화와 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사회·정서행동 검사의 후속조치와 연계하여, 관심군 학생의 경우 부모 및 보호자의 상담을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
-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정서발달학습교육의 통합적 커리큘럼 개발 및 확대 필요
- 사회·정서발달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
 - 사회·정서발달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정서·행동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모든 학생 대상의 사회·정서 학습을 보편적 차원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사회·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 연령별 단절 없는 지원체계 마련
 -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정도 및 연령별 단절된 지원들의 연속성 있는 연결 필요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II):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중심으로

박은정, 이재희, 박은영, 김연진

배경 및 목적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남성의 돌봄권 보장'이 명시되어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남성 자녀돌봄 참여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나 남성의 실질적인 시간지원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높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평등한 돌봄권을 가진 돌봄의 주체로서 남성의 자녀돌봄과 시간정책 이용의 복합적인 양상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보편적 권리로서 남성의 평등한 돌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 2차 자료 분석: 1차년도 서베이 데이터 분석
- 집단심층면담(FGI): 아버지 대상 FGI 7개 집단, 기업 대상 FGI 5개 집단
- 소셜 빅데이터 분석: 키워드 분석, 소셜 트렌드 분석, LDA 토픽모델링 분석, Gephi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 등
- 정책담론 분석: 스웨덴, 독일 사례
- 전문가 자문단 운영, 자문회의 실시
- 정책세미나 및 정책제안 공모전 실시

연구결과

- 국내 및 해외(스웨덴, 독일) 제도 분석 및 정책담론 분석
 -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 '돌보는 남성성'으로의 사회문화적 인식 및 정책 이데올로기 변화가 필요하며, 돌보는 아버지 친화적 요인이 기업 경쟁력이 되어야 함.
- 남성 자녀돌봄 시간자원을 자녀돌봄 시간과 시간지원 제도 이용 접근성으로 정의하고, 1차년도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남성 자녀돌봄 시간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남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및 1인 자영업자가 전체 자녀 돌봄 시간과 상호작용 돌봄 시간이 길게 나타나며, 평등한 성역할 인식이 높을수록 상호작용 돌봄 시간이 길게 나타남.



- 남성은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직장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 일 변경 경험이 있는 경우에 육아휴직제 사용 가능성이 높음.
- 남성 및 기업 대상 FGI 결과 분석
 - 남성과 기업 모두 돌보는 아버지상 수용이 중요
 - 남성의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 이용 경험이 돌보는 아버지됨에 기여
 - 자녀돌봄 시간정책에 대한 기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기업규모별, 지역별, 직종별 차이를 고려
 -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 대표나 고위관리자들 의사결정 조직 필요
- 남성 자녀돌봄 관련 최근 10년간(2013년 5월~2023년 4월) 소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 남성 자녀돌봄 문건은 2019년까지 증가 추이를 보였으며, 소셜 채널에서 코로나19 시기에 급격한 증가
 - LDA 토픽모델링 분석에서는 남성 중심 소셜 채널에서 2017~2018년에 토픽 개수가 5개에서 10개로 증가하여 다양한 담론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평등 이슈가 핵심 이슈로 등장
 - Gephi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남성 중심 소셜 분석에서 2021년 이후에 아버지 자녀돌봄과 관련된 데이터에서 구체적인 제도 사용과 관련된 키워드들로 구성된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 관련' 군집 등장

정책 제언

- 자녀돌봄 시간정책의 기본방향을 전제로 남성의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로 자녀돌봄 시간정책의 보장성 확보, 기업의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 이행력 강화, 돌보는 아버지를 위한 환경조성 제시
- 정책목표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제시
 - 정책과제: 제도 사용의 편의 및 유연성 확대 조치, 실질소득대체율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조정, 맞춤형 유연근로제도 확대 및 적용 지원, 기업 대상 인센티브 강화 및 체감도 높은 지원, 기업의 역할 및 실행 관리 감독 강화, 기업의 제도 추진 지원을 위한 조직화, 남성의 육아 및 시간정책 사용 관련 인식 개선 사업 추진, 아버지 대상 교육상담 및 활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자체의 시간 지원 자체사업 활성화 및 중앙-지자체 연계
 - 우선 세부 추진 방안: 자동육아휴직제, 최저임금 수준에 근거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맞춤형 육아기 유연근무제 실시, 동로지원금 제도, 기업의 휴가·휴직제도 고지 및 사용 권장 의무 부과, 가족친화경영위원회 조직 구성 등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서비스 질 제고 방안 연구

구자연, 권미경, 윤지연, 장유진, 박건령

배경 및 목적

- 전국 유치원 중 99.9%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재원 유아의 93.5%가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2023년 4월 1일 기준).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운영과 이용에서의 개선 요구는 여전히 높음. 양적 확장을 이룬 방과후 과정 서비스는 체계적이고 정교한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자와 수요자의 개선 요구 수렴 및 국내외 정책과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 사례조사, 심층면담, 설문조사
-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운영
-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정책토론회

연구결과

- [사례조사] 인식 변화, 행·재정적 지원, 지역 및 유치원 여건을 고려한 운영
 - 양질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과정이 교육활동이라는 인식 변화와 함께 질 높은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지역의 여건과 유치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지역 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과의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과 이용에서의 인식 차이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적정 하원 시각은 원장(감),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 학부모 집단 모두에서 오후 4시 이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학부모의 경우 원장(감),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보다 유치원 하원 시각이 다소 늦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방과후 과정 적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원장(감)과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은 편안한 침과 놀이 중심의 돌봄활동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학부모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 중심의 교육



활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방과후 과정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내용에서는 원장(감)과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은 유아의 흥미에 따른 자유 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학부모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제한(1일·1시간·1개 활동 이내)과 관련하여 원장(감), 방과후 담당 인력, 학부모 집단 모두 현재와 같이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원장(감)의 31.3%, 학부모의 33.7%는 운영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설문조사]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운영환경, 운영내용, 운영체계에서의 최우선순위 또는 차순위 개선과제 제시

정책 제언

-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비전: 촘촘하고 안전한 질 높은 교육·돌봄 환경 조성
- 정책목표: 유아중심 지속가능한 교육·돌봄을 실천하는 방과후 과정
- 정책 추진방향: 다양성(다양한 운영·이용), 형평성(균형적인 지원), 전문성(전문적인 대응)
- 추진방향에 따른 추진과제
 - 다양한 운영·이용: 운영의 재량권과 이용의 선택권 보장, 유아의 흥미와 발달을 고려한 내실 있는 방과후 과정 운영
 - 균형적인 지원: 희망하는 모든 유아의 방과후 과정 이용 보장, 방과후 과정 예산 지원 확대, 유아와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심리·정서적 건강 보호
 - 전문적인 대응: 행정적 지원 강화, 체계적인 인력관리, 지역사회 연대·협력 생태계 조성
- 추진과제별 실행방안 및 실행 로드맵 제시
- 실행기반: [조직] 방과후지원센터 설치·운영, [자원]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법령] 조례 제·개정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실태

김아름, 도남희, 이혜민, 양성은

배경 및 목적

- 아동은 온라인 환경에 친화적이고 적응력도 높으나,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위험요소에 대한 인지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의 효용성도 낮으므로 성인과 다른 특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함.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관련 정책에 아동 중심 관점 반영을 위한 영향평가 실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제시한 바 있음.
- 또한 2022년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최근에 활발히 논의가 진행 중인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정책 활용에 기초가 될 수 있는 해외 입법 동향 분석과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본 연구를 개발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온라인상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해외 법제 및 정책 고찰
- 부모 및 아동 대상 실태조사 및 FGI 실시
 - 14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1,238명 및 14세 미만 아동 261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 14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15명 및 14세 미만 아동 16명 대상 FGI 실시
 - 아동의 개인정보 이용 실태 및 프라이버시 보호 인식에 대한 요구(의견) 파악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정책 실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방향 의견 수렴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담당자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 아동권리단체와의 연구협력
 - 아동의 권리보장에 관심을 갖고, 최근 적극적으로 관련 홍보를 하고 있는 아동권리단체(세이브더칠드런, 굿



네이버스)와의 연구협력을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 이용 및 셰어런팅에 관한 실태를 공유하고,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

연구결과

-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모의 역할 규명 필요
 - 부모는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이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간과하는 경향을 보임.
 -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모의 권한을 아동 보호를 위해 수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함.
- 부모와 아동을 위한 온라인상 아동 프라이버시 교육 필요
 - 가족의 일상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 필요함.
- 부모가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 조성
 - 온라인상에 과도하거나 민감한 아동의 정보가 노출되면 그 주체가 부모라 할지라도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무분별하게 아동의 정보를 이용하는 타인에 대한 규제 필요
 - 부모는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타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아동 역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필요로 함.
 - 아동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

정책 제언

-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인식 개선과 역량강화
-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실천
-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률 제·개정안 마련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유해미, 문우경, 김문정, 장경희, 김송이

배경 및 목적

- 영유아의 종일제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초등자녀의 방과후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긴급한 상황에 자녀를 맡길 데가 없다'는 점은 대표적인 양육의 어려움으로 지목됨.
- 이에 따라 일상적으로 야기되는 틈새보육과 구분되는 긴급한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제안함.

연구방법

- 사례분석: 일본과 지방정부의 긴급돌봄 지원사업 및 정책 현황 조사하고 시사점 도출
- 설문조사: 긴급돌봄의 어려움과 지원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와 초등자녀(6~8세)를 둔 가구 1,565명을 대상
- 심층면담: 긴급돌봄 서비스 유형별 개선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담 실시
 - 6개 그룹의 수요자(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 등) 총 23명 대상
 - 6개 그룹의 서비스 기관 운영자(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등) 총 21명 대상

연구결과

- 긴급돌봄의 사유와 어려움 정도
 - 긴급한 사유별로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이용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4.14점, 직장에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4.09점,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3.98점,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3.95점, 자녀를 출산한 경우 3.93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긴급돌봄의 대응 실태와 애로사항
 -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는 긴급돌봄이 쉬운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는 경우가 54.5%, 휴직을 연장하거나 반복한 경우가 54.4%, 재취업 또는 취업준비 시기를 늦춘 경우가 53.0% 순으로 조사됨.
 - 응답자 본인 또는 배우자 등 주양육자가 자녀를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시급하게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길 사람이나 기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돌봄인력이 68.8%인 반면, 돌봄서비스 기관은 25.6%에 불과하였음.



-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개선요구
 - 긴급한 경우 공공 부문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만족+매우 만족)은 다함께돌봄센터 61.6%(3.77점, 5점 척도), 현재 이용 중인 유치원 57.9%(3.53점),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55.7%(3.53점), 지역아동센터 50.0%(3.4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긴급돌봄 지원요구
 -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긴급하게 돌봄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은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응답률 기준으로 '자녀가 아파서 등원 또는 등원하지 못한 경우'가 57.9%로 가장 높고,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37.6%, 갑작스러운 야간근로 23.0%, 이용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16.9%, 주말 또는 휴일에 일해야 하는 경우 16.4%, 이른 시각에 출근 또는 근무해야 하는 경우 14.2%, 직장에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10.0% 순으로 조사됨.
 - 자녀가 아픈 경우 선호하는 긴급돌봄 방식은 5점 척도 기준으로 '이용 중인 기관내 돌봄공간'이 평균 3.66점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정파견 전문 돌봄인력 2.95점, 의료기관내 돌봄시설 2.92점 순으로 조사됨.

정책 제언

- 긴급돌봄의 서비스 지원의 방향 및 전략은 1) 서비스 다양화(기관돌봄+가정내돌봄), 2)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통합연령 운영과 지역맞춤형 지원, 3)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연계 활성화로 설정함.
- 긴급돌봄 서비스 기반 조성 및 법적 근거 마련 방안으로는 유관 서비스의 긴급돌봄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침 보완, 유관 부처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단위 돌봄협의체 활성화, 긴급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긴급돌봄 정보 접근성 제고, 전자출결관리시스템 확대 설치 등 긴급돌봄 아동의 안전관리 등 운영기준 일원화를 제안함.
- 긴급돌봄의 유형 및 대상별 서비스 지원 방안으로는 '아픈 자녀' 대상 긴급돌봄 지원('질병아동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등), 기관 이용가구의 긴급돌봄 지원(야간·휴일 긴급돌봄 거점어린이집/거점유치원의 지정 및 요건 마련 등), 가정내 양육가구 긴급돌봄 지원(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기준 관련 개선 등)을 제시함.

영유아 데이터 통합 현황과 개선 방안

도남희, 박진아, 김문정, 심수진

배경 및 목적

- 초저출산 시대 타개를 위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이 중요함.
-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아동 통계 개선을 강조함.
- 영유아기 지원 정책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생애주기에 있어 초기 자료의 축적으로 아동 발달에 기여하고자 함.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 및 자료 분석
- 전문가 조사 2회 실시
- 국외출장을 통한 사례조사
-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연구결과

- 국내 데이터 현황과 한계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거나 관련 자료가 생산되는 통계는 모두 40여 종이며 이는 전체 승인통계 중 3.1%로서 영유아 대상 통계 자료의 부족을 보여줌.
 - 보육 및 교육 실태 관련 조사와 건강 관련 조사에 한정되어 있음.
- 영유아의 발달시기별 적절성과 필요성에 따른 지표 구성
 - 아동 삶의 질 지표와 연계선 상에서 8개 영역으로 구성함.
 - 사회적 배경, 물리적 환경, 건강·영양, 발달·학습, 안전·보호, 관계·돌봄, 놀이·미디어, 행복감 영역

정책 제언

- 영유아 데이터 생산 체계 구축
 - 영유아종합실태조사의 신설을 제안함: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풍부한 정보 구축
 - 기존의 통계나 실태조사를 데이터를 추출하여 영유아에 대한 데이터 확보



- 영유아가구 통계 등록부 구성
- 영유아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 영유아 데이터의 핵심지표에 따른 통계 생산 여부(승인 통계, 비승인 통계) 관리 필요
 - 영유아 특성에 맞는 문항 개발과 측정치에 대한 개발 필요
- 영유아 데이터베이스 구축
 - 영유아 핵심지표 체계에 맞는 데이터 생산 기반 마련 필요
 - 영유아기 시계열 데이터의 수집의 중요성 강조
 - 통계 생산을 위한 관련 기관들 간의 의견 수렴과 협력을 위한 협의체나 위원회 조정기구 등 필요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이정원, 유해미, 조혜주, 김윤환, 신윤정, 한인애

배경 및 목적

- 영아기 양육지원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정책적 관심의 증가로 인한 영아 양육지원의 확대와 다양화에 따라 유관 제도들 간의 정합성 제고와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영아 가구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양육지원 방안이 요구됨.
- 영아를 위한 효율적·효과적 양육지원, 양육지원 범주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 방안을 제안함.

연구방법

- 문헌 연구: 영아 가구 특성 및 영아 양육지원 정책 동향 분석, 영아 양육지원 정책 현황 분석
- 해외 사례 분석: 일본, 프랑스, 스웨덴의 영아 양육지원 정책 동향 및 서비스, 현금, 시간 지원 범주별 정책 비교 분석
- 0~2세 영아 가구 부모 조사: 영아 양육 실태 및 정책 요구 분석(최종 1,021명 응답)
- 영유아 양육지원 전문가 조사: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를 위한 요건 등에 관한 의견 수렴(최종 32명 응답)
- 영아 가구 총 16사례 심층 면담(FGI): 영아 양육의 구체적인 상황 및 정책 지원에 대한 의견 등 실태조사 결과 보완

연구결과

- 영아 양육 실태
 - 가정양육을 선호하나 어린이집 이용률은 높으며(54.4%), 특히 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80%를 상회함. 평균 7시간 24분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어린이집 이용 영아 중 44.1%가 연장보육을 이용함. 현재 이용 시간은 어머니가 장시간 근로할 경우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16.4%).
 -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은 희망시기보다 약 7개월가량 이르게 시작되고 있으며(평균 생후 14.9개월), 이는 실제 희망하는 시기에 이용이 연계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초기에 입소대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평일 기준 영아를 돌보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의 3배 이상으로 어머니 위주의 양육 형태를 보임.
- 영아 양육을 위한 정책 요구
 - 영아 양육의 애로사항은 신체적·정신적 부담, 낮은 소득 대비 양육비용 부담, 일가정양립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음.



- 어머니의 44.5%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상의 불이익 경험이 있으며, 경력상 불이익 경험이 있는 경우 어머니가 현재 미취업 혹은 40시간 미만 근로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근로소득도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영아 가구는 현금지원에 대한 인지도와 수혜 경험이 가장 높고, 시간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제도 유형에 따라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수혜 경험은 성별로도 격차를 보임.
- 영아 가구는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양육지원으로 현금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고, 시간 지원(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남.
- 영아 양육지원의 바람직한 방향
 -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영아기에 가정 양육을 지원 정책 확대는 바람직하나, 향후 현금 지원 보다는 시간 지원 확대에 더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임. 특히 영아 생후 1년까지의 시간 지원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96.9%임.
- 영아 양육지원 제도의 도입 및 변화의 영향
 - 부모급여 확대는 영아의 기관 이용률을 낮출 것으로 예상되며(전문가 응답 65.6%), 육아휴직의 기간 확대는 여성에게, 급여 상향은 남녀 모두에게 이용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함. 한편 육아휴직 이용 가능 기간이 확대 될 경우 영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기는 지금보다 늦추어질 것으로 예상함.

정책 제언

- 정합성 있는 정책 지원 체계 구축, 가구 특성(양육지원 욕구의 다양성)에 따른 지원의 충실성·다양성(선택권) 확보, 영아 연령별 핵심 양육지원 전략의 차별화, 수요자의 정책지원 접근성 제고를 체계화의 추진 방향으로 제안
-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기준별(정책 목적/지원 대상 특성/지원 유형) 체계화 방안 제안
- 정책 범주별 개선 방안 제안
 - 서비스 지원: 영아 보육 실수요층을 위한 서비스 기관 인프라 안정성 확보, 가정 돌봄-기관 돌봄 전환 예정 실수요자를 위한 기관 보육서비스 이용 연계 강화, 영아 연장보육료 수익자 부담·차등지원 도입, 단시간 이용서비스 접근성 제고;
 - 현금 지원: 유사 중복성 현금 지원의 통합 및 현금 지원 신청 및 자격조건별 지급 일원화
 - 시간 지원: 시간 지원 적용 대상의 포괄성 강화 및 시간 지원 욕구에 따른 차등 지원 도입 검토

부모의 선택권 보장과 기관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유치원 운영 다양화 연구

김은영, 구자연, 김혜진, 이성희, Eun Kyeong Cho

배경 및 목적

-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특성, 다양한 경험과 맞춤형 케어를 원하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요구,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된 유아교육 중장기 정책과제를 고려할 때 유치원 운영 다양화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치원 운영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여 운영모형(안)을 제안하고, 다양한 유치원 운영모형(안)을 기반으로 한 유치원이 실제로 운영이 되고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정책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유치원 원장(감), 교사, 학부모 각 7인, 유아 대상 학원 학부모 7인, 총 28인
- 설문조사: 유치원 원장(감) 402인, 교사 602인, 학부모 508인, 총 1,512인
- 사례조사: 유치원 5개원의 원장(감) 5인, 교사 10인, 학부모 8인, 총 23인

연구결과

- 국외의 유아교육기관 운영기준
 - 노르웨이, 미국, 싱가포르의 유아교육기관 관련 제도 검토
 - 부모의 직장 출퇴근 시간 등 사정을 고려한 일과운영, 한 팀의 교원들이 전체 일과 담당 또는 전문인력 적극 활용, 부모와 아동의 필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 운영,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 혹은 다문화를 고려한 교육과정 제공 등이 특징
- 유치원 운영·이용 관련 실태 및 인식
 - 유치원 교원은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구성으로 8시간 운영, 부모는 '아침돌봄-교육과정-방과후 과정-저녁돌봄'으로 9시간 40분가량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유치원 교원은 교육과정을 제외한 아침돌봄, 방과후 과정, 저녁돌봄에서 방과후 과정 전담교사가, 부모는 저녁돌봄을 제외한 모든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담당해주기를 원함. 적정 교사 대 유아 비율 또한 유치원 교원에 비해 부모가 훨씬 더 낮게 인식함.



- 유치원 교원은 특색프로그램 운영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력 부족을 지적, 유치원 교원과 부모 모두 가장 원하는 특색프로그램은 '숲·생태교육'이 가장 많았음. 방과후 과정 운영에서 유치원 교원은 교육과정 연계, 부모는 특성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함.
- 부모의 유치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책, 유치원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유아 중심의 유치원 운영을 위한 정책 모두에서 유치원 교원은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을, 부모는 부모의 유치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는 운영시간의 다양화, 유아 중심의 유치원 운영을 위한 정책으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을 가장 많이 응답함.
- 유치원 운영사례
 - 운영시간은 하루 11시간 이상, 아침돌봄-교육과정-방과후 과정-저녁돌봄의 형태가 일반적
 - 인력배치는 담임교사 2명, 단시간 보조인력 지원, 시간제/기간제 방과후 강사 배치가 공통적
 - 차별화된 놀이 중심 교육과정, 특성화 대체 특색교육 및 체험활동 등은 우수한 교육력
 - 혼합연령 학급, 유·초연계, 담임연임제 등 특화된 기관여건, 풍부한 실내·외 교육공간, 전문성 있는 교사와 공교육 등은 유치원 이용의 중요한 선택요인

정책 제언

- (정책방향) 유치원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및 정부의 규제 최소화, 유치원의 다양한 운영형태와 융통성 있는 운영 인정 및 지원, 유치원 돌봄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지원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으로 유치원의 부담 최소화, 부모들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유치원 선택 지원, 유치원 운영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 (지원방안) 4가지 측면에서 지원방안 제안
 - (운영시간) 수요에 기초한 운영시간의 융통성 부여, 돌봄시간은 교육청이나 지역사회 담당
 - (인력배치) 일과 동안 2인 이상의 성인 배치, 인력의 직무 명료화 및 협력적 운영, 지역사회 인적 자원 활용 및 소속감 증진, 교육청 주도 인력 플랫폼 설치 및 운영
 - (프로그램) 유치원 특색교육 운영 지원 및 정보 제공,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체험 활성화 지원
 - (교육여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물리적, 인적 환경 지원, 부모교육 및 상담 활성화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 :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김동훈, 이윤진, 최윤경, 김영민

배경 및 목적

- 정부의 육아정책 중, 유아교육과 보육의 정책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핵심분야에 대한 국정과제 성과를 분석함.
-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의 수립에 따른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설계와 계획, 이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유의한 성과와 함께 계획 대비 미비한 부분 및 미이행 지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안함.

연구방법

- 문헌분석
- 부모면담: 영유아 부모 6명, 초등저학년 부모 2명
- 부모 및 전문가 설문조사: 부모 2,000명, 전문가 98명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정책공모전 및 간담회 개최

연구결과

- 현 정부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다는 점에서 아직 수행정도나 가시적 성과가 높지 않았으나, 국정과제가 5년간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과 성과 홍보를 통해 정책수요자들의 인식 확대가 가능할 것임.
- 정책방향성으로는 부모는 부모 현금지원을, 전문가는 서비스 질 제고를 최우선으로 보았음.
- 유아교육·보육 정책관련 국정과제 주요성과
 - 부모들은 부모급여 등 현금지원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부모급여의 상향지원과 가정양육 어린이집의 선택권 부여를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현금지원 방식의 확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남.
 -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이외 유치원 교사 대 유아 비율의 조정, 부모교육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시간제보육과 아이돌보미 사업의 상충성과 상보성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함.
 - 아동돌봄체계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제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 추진, 마을돌봄 확대 등을 잘한 점으로, 돌봄종사자의 낮은 임금 수준, 민간돌봄서비스 자격관리제도나 등록제



도입으로 오히려 공공의 책임성 약화 우려, 늘봄학교-마을돌봄 간 연계나 불분명성 존재, 돌봄기관의 질 격차 등이 미흡한 점으로 보았음.

- 산모·아동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다양한 임신·출산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비용중심의 서비스에 대한 우려, 산부인과 및 소아과 전문의 부족, 장애여성 등 양육의 어려움이 있는 산모 및 아동에 대한 서비스지원 부족,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의 실효성 등에 우려를 나타냄.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급여수준의 인상 및 복귀 프로그램 필요, 이종노동시장에 따른 격차 해소 및 실행력 강화, 남성 배우자의 일가정양립 지원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육아휴직수당 인상 등), 유연한 근로시간 및 근로 장소 등 육아휴직 이외의 육아친화제도 강화,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채용 지원금 도입 및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강화,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양육지원체계의 정책목표 확립과 재구조화, 우수 기업 사례 발굴 및 홍보 확대 등을 제안함.
-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했다는 점, 유보통합 관리부처 교육부로 일원화,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등을 잘한 점으로 보았고, 2025년에 실질적 유보통합이 가능성에 대한 의문, 이해관련 집단과의 지속적인 소통이나 정보 공유 등 부족, 법제화가 없다는 점, 교사 처우 개선 등 가시적 성과 부족, 유보통합 필요성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을 미흡한 점으로 보았음.

정책 제언

- 육아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균형 잡힌 유아교육·보육 지원 정책 필요', '유아교육·보육 정책 및 서비스 간 중복성 제거 및 통합', '영유아 안전에 최우선'을 제안함.
- 현금지원정책으로 가구특성을 고려한 추가지원 정책 마련, 부모급여 등 현금지원 수혜 연령 연장 및 추가 바우처 제공 등을 제안함.
- 서비스 지원 정책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실효성 제고,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육·보육 프로그램 제공 검토, 돌봄/아동학대 관련종사자/가족지원 종사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 임신·출산 관련 지원 전문인력 확충 및 진료비 수가 조정 등을 제안함.
- 시간 지원 정책으로 출산 후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 이용 촉진,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제안함.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II):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지원 방안

조숙인, 배윤진, 이정아, 송경희, 김희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총 5개년에 걸친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연구 중 두 번째 시리즈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를 포함하는 청소년부모¹⁾를 연구 대상으로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부모의 양육역량(내적 영역+외적 환경) 강화를 촉진하고자 양육 지원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들을 위한 육아지침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임.

연구방법

- 문헌연구: 여성가족부 제공 청소년부모 통계자료 분석, 기존 정책 분석
- 설문조사: 청소년부모 285명(청소년부부 160명, 청소년한부모 125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 심층면담: 청소년부모 15명(청소년부부 7명, 청소년한부모 8명) 대상 심층면담 실시 및 분석
- 현장전문가 간담회: 2회 실시(1차=청소년부모, 미혼모 지원 단체 대표 및 실무진 대상, 2차=보건, 의료분야 현장 전문가 대상)
- 전문가 자문회의/정책실무협의회: 자문회의 16회 개최, 동료멘토링 2회 개최, 정책실무협의회 1회 개최(여성가족부 보고서 검토 2회 이상)
- 육아지침서 개발 및 홍보: '청소년인 부모 힘 키우기' 육아지침서 개발, 홍보 쇼츠 제작
- 정책세미나 개최: 1회 실시(KICCE 11차 정책토론회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지원 방안', 11/28(화))

연구결과

- 임신·출산·건강
 - 첫 자녀 출생 시 평균 연령 모 19.3세, 부 21.9세임. 임신·출산 시 경제적 부담을 가장 높게 보고함. 도움 받을 곳이 없는 비율이 10.2%~18.6%로 보고됨.
 - 산후우울을 경험한 비율이 84.4%, 상담 경험이 있는 경우가 25.3%임.
- 자녀 양육/돌봄 및 역량
 - 경제적 부담을 가장 높게 보고하고, 신체적 부담/정서적 부담이 뒤를 이음.
 - 자녀 양육 정보 습득 방식은 인터넷 블로그/사이트, 가족, 친지 의존도 높음.



- 자녀와의 애착과 양육역량을 보통 이상 수준으로 보고하여, 자신의 양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태도를 보임.
-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양육역량 1순위는 '상호작용 역량'임.
- 가정환경
 - 학업: 고등학교 졸업 비율 70.9%로 가장 높고, 현재 부모 중 적어도 1명이 경제활동 중인 경우는 30.9%임. 일하는 경우 정규직이 43.2%임.
 -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정부지원금 제외)은 약 152만원으로 청소년한부모(약 61만원)보다 청소년부부(약 224만원)의 가구소득이 높음. 월평균 정부지원금은 약 80만원으로 청소년부부(약 60만원)보다 청소년한부모(약 106만원)의 정부지원금이 높음.
- 청소년부모 영역별 지원 요구(1순위 기준): 자녀 양육 지원 > 임신·출산 지원 > 가족 주거 지원 > 부모 취업 지원 >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 부모 학업 지원

정책 제언

- 청소년부모 제도 기본 방향 제언: ① 부모로서의 지원: 임신기, 자녀 생후 초기 지원 강화, ② 청소년으로서의 지원: 자립 촉진, ③ 전달체계: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전달체계 구축
- 청소년부모 세부 영역별 지원 전략 제언
- 청소년부모 지원 전달체계 모델 제언: ① 가족센터 or 드림스타트 단독형, ② 가족센터+드림스타트 복합형 제시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힘 키우기' 육아지침서 개발 및 배포
 - 육아지침서 홍보 쇼츠 영상 제작 및 배포
 -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i-누리 포털 게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드림스타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청소년부모 민간 지원기관 등에 배포

1) 본 연구의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부'와 '청소년한부모'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모와 청소년부를 의미함. 즉, 본 연구의 청소년부모는 '포괄적인 청소년부모'로 '청소년한부모(한부모 가족복지지원법)', '부모 모두 청소년인 청소년부부(청소년복지지원법)', '부모 중 한명만 청소년인 청소년부부(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모두 포함함.

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추이분석 및 대응 방안(II):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인프라 중심으로

이재희, 양미선, 윤소정, 김종근, 구형모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육아인프라 2년차 해당 연구로 어린이집·유치원 중심으로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의 수요·공급 현황과 지역별 형평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임.

연구방법

- 어린이집·유치원 정책 동향분석
- 어린이집·유치원 수요 가구 대상 조사 실시
- 어린이집·유치원 밀집도 파악, 취약지역 선별
- 접근성 분석을 통한 취약지역 분석
- 머신러닝기법 및 형평성 분석을 통한 어린이집·유치원 수요예측
- 육아인프라 확충 관련 정책공모전 개최

연구결과

-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및 이용 추이
 - 2022년 12월 기준 0~6세 영유아 수는 2,204,95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3년 0~6세 영유아 수와 비교했을 때 약 100만명 정도 감소한 수치임.
 - 통계청 중위 인구 추계 기준 유치원·어린이집 수는 2022년 대비 2028년에는 8,331개소가 감소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위추계 기준으로는 12,416개소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형평성 분석
 - 전체 어린이집·유치원 기준과 영유아 수 인구(0~6세)를 기준으로 비형평성 계수를 산출한 결과 거의 형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비형평 계수가 높았던 지역은 전남이었으며, 울산, 인천 순이었음.
-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이용 현황과 수요
 - 거주지에서 기관까지의 이상적인 거리는 도보 평균 8.5분 거리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주지 지역에 따라 이상적 거리에 차이가 있었음. 읍·면지역은 도보 평균 10.1분, 대도시는 8.7분, 중소도시는 7.1분인 것으로 나타남.



- GIS를 활용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수요 분석 및 취약지역 선정
 - 영아 교육·보육 인프라의 경우 임계거리가 6km일 때, 접근성 점수 hot spot은 600m 임계거리의 hot spot에 더해 대전시, 경기 수원시, 안산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군포시, 용인시, 화성시, 여주시, 강원 춘천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아 교육·보육 인프라의 경우 임계거리가 6km일 때, hot spot에 비해 대도시 지역의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한정되고 cold spot은 대도시 내로 한정되는 현상이 두드러짐.
- 어린이집·유치원 단기 수요 추정 및 공급 진단 방안
 - 머신러닝 기법 중 인공신경망 모형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단위는 시군구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5세 인구, 4세 인구, 3세 인구, 신혼부부 수순으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책 제언

-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한 어린이집·유치원 수급계획 및 정책개발
 - 육아 인프라 통합 데이터 센터 설치, 법인 유치원·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폐원관리, 보육교사 인력풀 활용
- 취약지역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지원 강화
 - 육아 취약지역 지원 컨설팅 사업단 마련, 폐교 시설 통합돌봄 시설로 활용, 취약지역 어린이집·유치원 거점 필수 인프라 지정
-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지역별 형평성제고
 -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공유형 프로그램 마련, 영아 인프라 취약지역 보육 교사 파견, 지역 인구 유입 정책과 육아인프라 정책 연계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 방안 연구(II)

최은영, 김은영, 김태우, 윤정환, 이영애, 박희현, 최윤경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팬데믹 자체는 모두의 동등한 재난이지만 취약계층은 사용 가능한 자원의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에 노출되며, 이러한 문제가 자녀의 발달 및 학습격차를 유발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영유아의 성장·발달과 교육·보육·돌봄의 운영 측면에서 2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분석 및 추적 관찰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미치는 누적적인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안함.

연구방법

- 문헌분석: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영유아기 발달 및 학습 격차 관련 현황 및 요인, 영유아의 기관 전이 및 적응 등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함.
- 심층면담: 발달검사(만 3세반 유아,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참여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일상생활 변화,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및 학습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격차 체감 등을 조사함.
- 임상사례 분석: 서울·경기 지역 아동 임상 전문가 중 최소 경력 5년 이상으로 공인된 자격증을 소지한 7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을 사용한 심층면담을 실시함.
- 온라인 설문조사: 2차년도 발달검사에 참여한 아동(만 3세반 유아,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 신체 특성(키와 몸무게), 집행기능, 발달 상황, 학업 수행 능력, 학교 및 시설 적응,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부부 갈등, 양육 스트레스, 자녀 이용기관, 사교육 과목, 자녀 교육 서비스 이용 시간 등을 조사함.
- 발달검사: 1차년도 발달검사에 참여한 아동(만 3세반 유아,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K-WPPSI-IV(아동수행), K-Vineland-2(보호자평정) 검사를 수행함.

연구결과

-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분석한 결과, 신체·건강 발달 측면에서는 미디어 노출 시간과 좌식 생활의 증가,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수면 등으로 인해 비만과 유병률을 증가시켰음을 보고함.
 - 언어·인지 발달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환경 변화가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미디어를 활용한 자녀와의 독서가 증가하였으며, 부모들은 문



해력의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고, 독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하기도 함.

- 사회·정서 발달 측면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감내해야 했던 스트레스 상황이었으나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환경이 아동에게 더 큰 스트레스 요인을 작동했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초점을 둔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함.
- 연구 참여자 부모 및 임상사례 전문가 대상 심층면담 결과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가정의 양육환경 변화와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과 학습의 요인으로 작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언어발달 측면에서는 마스크의 사용으로 영유아의 언어발달 지연의 우려가 있었으나 언어발달 지연 문제는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과 양육 환경에 따른 표현어휘의 격차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도 있음.
 - 사회·정서 발달에 있어서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과 무기력, 소통의 어려움, 혼자놀이의 선호 등과 같은 문제들을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로 나타나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2차년도 발달검사 결과
 -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점수는 1차년도와 동일하게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도 평균 수준이었으나 생활기술영역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임. 한편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도 평균 수준이었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도 평균 수준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1, 2차년도 결과의 횡종단 비교 결과
 - 초등 1학년 아동의 경우 언어이해지표에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적응행동 또한 전반적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유의한 점수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수용, 표현 하위영역과 의사소통영역은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 모두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본 연구 집단의 비교군으로 한국아동패널의 해당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기전들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주 양육자와 보내는 시간의 질, 발달과 학습에의 관심이 높은 집단과 고용불안의 위험 등으로 부모의 스트레스가 높고,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발달과 학습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정서적인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음을 보여줌.



정책 제언

-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발달 영역별 지원, 가정환경 요인으로써의 부모 지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영향 추적 및 지원, 생애 초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세대의 중장기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구분하여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

영역	과제
아동의 발달 영역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발달의 중단 추적 - 또래관계(사회성 발달) 기회 확대 - 아동의 정서발달 우선 지원 - 신체활동(운동) 기회 제공
부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 아동 발달 시기별 맞춤형 지원 -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 주양육자의 심리적 소진 완화 지원
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 및 기초학습 지원 강화 - 취약계층 중점 지원 예산 확대 - 삶의 질 전반에 대한 격차 완화
코로나19 팬데믹 세대의 발달 모니터링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건강검진과 연계한 발달 모니터링 - 시도 교육청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 드림스타트 센터 등과의 영유아 발달 연계 지원 - 발달 및 학습에서의 지역 격차 요인 등을 고려한 후속연구 추진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Ⅰ): 실행과제 도출과 성과지표 개발



문무경, 박창현, 정유나

배경 및 목적

- 지속되는 초저출산,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84번 과제로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을 설정하여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을 실현하고자 함.
-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유보통합 방안 제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방안의 실효성 평가 및 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는 부재함. 관계집단의 상생발전과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성과평가 및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필요
- 본 연구는 3개년 연구의 1차년도 연구로, 그 목적은 다음과 같음: ① 중앙단위와 지역단위의 추진 현황과 요구 분석(경기지역 관리체계 일원화 전략 분석), ② 유보통합 실행과제 도출 및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③ 유보통합 추진의 제한요인 분석 및 성과 제고 방안 제시

연구방법

- 델파이 조사: 총 44명(유보통합연구자문단, 17개 시도 유보통합 담당공무원 등) 대상으로 유보통합 성과지표(안) 개발
- 17개 시도교육청과 시도청 의견 조사(총 34명) 및 17개 시도 권역별 워크숍(총 43명 참여, 총 5회)
- 해외사례 웨비나 및 자문회의(핀란드, 영국, 대만 등의 전문가 초빙)
- 정책토론회 개최(2023년 11월, 주요 연구결과 공유 및 성과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연구결과

- 성과지표(안) 개발
 - 유보통합의 중장기 성과지표 우선순위: 영유아 교육격차 해소(17.3%) > 유보 행정체제 일원화를 통한 정책의 안정성, 일관성 및 효율성 강화(16.8%) >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감 증진(12.6%) 순임.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I): 실행과제 도출과 성과지표 개발

문무경, 박창현, 정유나

〈표〉 유보통합 목표별 성과지표(안)

세부 목표	성과지표(안)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 적정 전담 행정조직 확보 및 역량 강화 - 유아교육, 보육 5개년 통합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을 - 중앙 및 시도 수준의 교육-보육 통합 재정체계 마련 - 유보통합 이전 대비 재정 증감을
단계적 교육·돌봄 부담 완화	- 재정책보율(목표대비 확보율) - 학부모 교육비 부담 증감을 - 통합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격차 해소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조성	- 교사 1인당 영유아 수 - 시설기준 통합 계획 수립과 적용 - 아침돌봄, 방과후과정, 저녁돌봄 환경의 안전성
교사처우 개선, 자격 및 양성체제 개선	-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 일원화 달성률 - 교사 처우개선비 확보율 및 향상율(보수 격차 감소율)

- 17개 시도교육청과 시도청 조사결과
 - 유보통합 제반 부문에 있어서 1순위 실행과제로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 모두 '유보 행정조직의 설치'로 조사됨.
 - 시도교육청은 재원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시도청은 돌봄과 어린이집 관리 등 보육 기능이 약화될 것을 가장 우려함
- 유보통합 추진의 제한요인
 - 유보통합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과정에 대한 소통 미흡, 지역단위 유보통합 준비 조직 부재와 협의체 운영 미흡, 유보통합을 위한 소요 예산 확보 불투명, 지역단위 유보통합을 위한 상세한 지침 또는 매뉴얼 부재, 유보통합 추진 시기의 적절성 문제



정책 제언

- 유보통합에 필요한 법 제개정
 - 정부조직법 개정(보건복지부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교육감이 지역단위 유보통합 추진 및 사무와 조직 관장), 유아교육법개정(교사 전환, 통합기관으로의 전환 근거 마련), 설립기준 근거 법령(시행령) 제정 등
- 유보통합 소요 자원 확보의 원칙 제시(최소한 현재 재정 규모 유지, 지방재정교부금과는 별도의 유보통합특별회계 설치 등)
- 지역단위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활용
- 유보통합 하위목표별 성과지표(안)의 수정보완 및 각 지표별 정의와 산출방식 마련
-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성과 분석
- 유보통합 관련 현장 컨설팅 제공, AI 기반 소통창구 마련 등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II)

최효미, 이정원, 조미라, 우석진, 김태우

배경 및 목적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 및 소비실태,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통계자료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에 걸쳐 1기 연구가 마무리된 상태이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연속과제로 2기 'KICCE 소비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임.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은 크게 본조사와 부스터 표본에 대한 부가조사로 구분되며, 부스터 표본은 무자녀 가구와 임신부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됨.
- 조사 자료의 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1기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2)'를 활용한 심층 분석과 데이터 특성 분석을 실시.

연구방법

- 주요 연구내용이자 연구방법으로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조사 수행
- 선행연구 검토 및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2년 자료를 활용한 2차 통계자료 분석, 국내 다른 통계 자료(인구동향조사, 가계동향조사, 노동패널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보육실태조사 등)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데이터 특성 점검
-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2년 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 실시(아동수당 효과성 및 코로나19 시기 보육서비스가 노동시장 참여에 미친 영향)
- 부모 심층 면담,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연구 실무협의회 실시

연구결과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조사 실시
 - 2023년 본조사(영유아 가구)의 전체 표본 수는 1,773가구로, 추적 대상 표본 1,518가구 중 1,258가구(82.8%)가 추적조사에 성공함. 본조사 아동용 설문에 응답한 영유아 표본의 수는 2023년에는 2,422명임.
 - 2023년에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대조군으로 무자녀 가구(817가구)와 임신부 가구(504가구)에 대한 부스터 표본 구축 및 조사를 실시함.



-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2) 주요 통계 및 데이터 특성 비교
 - 2018~2022년 기간 중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실질비용)은 2020년을 제외하면 65~66만원 수준을 유지함.
 - 정부 지원금 월별 수급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장기에 걸친 종단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들은 대체적으로 2세가 되면 90% 이상의 아동들이 기관에 입소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019년생의 1세 시기, 2020년생의 0세 시기였던 2020년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때로 이 시기에는 가정양육수당의 수급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양상도 확인됨.
 - 영유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영유아 수(표본)는 2018년 2,277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1년에는 2,401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22년 약간 감소하여 2,395명이었음.
- 아동수당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
 - 아동수당 수급자가 1명 많아질수록 아동당 양육비용은 4~5차(2021~2022년) 기준 7만원가량 증가함.
 - 아동수당은 맞벌이 가구 뿐 아니라 외벌이 가구의 아동당 양육비용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맞벌이 가구에 비해 외벌이 가구에서 그 효과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확산기에 자녀 돌봄 서비스의 가용성이 영유아 양육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 분석 결과
 - 코로나19의 확산은 경제활동참가와 노동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고용유지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었음.
 - 민간어린이집 비율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의 부정적 효과를 상당히 완화하는 것으로 추정됨.

정책 제언

- 'KICCE 소비실태조사' 품질 제고를 위한 제언
 - 영유아 가중치 추가 산출 및 가중치 산출 방식 개선, 자료 공개를 위한 데이터 재정비 필요성, 다양한 모드(조사 방식)를 활용한 조사 방법 개선, 표본 할당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맞벌이 가구, 저소득 가구 표본 조정
- 심층 분석 결과에 기반한 정책 제언
 - 다자녀 가구 아동수당 지원 연령 상향 조정, 저소득 영유아 가구 현금 지원 제도 강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는 육아휴직 추가 사용 허용, 유연근무와 같은 육아시간 지원 정책 강화 및 실효성 제고

미래환경 대응 유치원·어린이집 조성방안 연구(II): 영유아교육분야 SW·AI 활용방안

박창현, 김은설, 권미경, 계보경, 정영식, 조경진, 윤지연, 김언경, 정혜인, 박신영, 동플임, 윤여주, 양유진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세대 영유아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영유아교육분야 SW 및 AI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임.
 - 국정과제 대응: 국정과제 81(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82(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국정과제에 대응하여 유아교육분야 SW 및 AI 활용 시 교육과정/방과후과정 연계와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 방향, 안전성 및 정보 관리 관련 등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사례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조사: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연계, 미디어 리터러시, 영유아단계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관련 법제도, 지침, 안전 관련 조항 등을 검토
- 전문가 의견조사: 영유아단계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소양 교육 및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20인의 유아교육, 보육, 전문가들의 선정하고 전문가 의견 조사를 2회 실시
- 사례조사: 국내에서는 디지털 선도 유아교육기관 및 관련 기업, 우수학교 등을 방문하여 사례조사를 실시, 국외 사례의 경우에는 연구진이 안전과 보호 관련, 실제 사용 사례 등을 문헌조사하여 정리
- 정책 포럼 개최
 - 1차 디지털 포럼(2023. 11. 10): 유아 AI, SW교육, 논쟁과 해법은?: 안전 vs. 창의 프레임 넘어서기
 - 2차 디지털 포럼(2023. 11. 16): 포스트휴먼 유아 그리고 디지털: 모두를 위한 페다고지 포럼 실시

연구결과

- SW 및 AI 관련 윤리적 위험과 지침 분석
 - 위험요인 분석: 온라인 디지털 환경에서의 윤리적 위험,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에 따른 윤리적 위험, 발달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위험, 사회적 맥락에 따른 윤리적 위험,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의 윤리적 위험 분석
 - 관련 윤리적 지침 분석: OECD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을 위한 권고, OECD의 디지털 시대 영유아 보호를 위한 권고, 국제기구의 SW 및 AI 윤리 지침



- SW 및 AI 교육 프레임워크 분석
 - 핀란드 영유아교육과정, 영국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영국 인터넷 안전 위원회의 프레임워크, 미국 컴퓨터과학 교사협회의 컴퓨터과학 프레임워크, 미국 K-12를 위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AI4K12), 국외 교육과정 및 프레임워크 내 SW 및 AI를 위한 윤리 관련 내용 분석
- 포스트휴먼적 SW·AI 유아교육과정 모델 제안
 - 가치와 영역, 교육적 방향과 관점, 철학적 관점(포스트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에 근거한 유아 SW·AI 교육과정 제안
 - 포스트휴먼적 교육과정의 방향(엄격있는, 횡단적, 비차별적 교육과정), 교육과정 원리(과정중심 통합적 학습,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놀이, 다감각적, 다양식적 언어를 통한 소통, 개별학습과 협력학습의 공존)
- 영유아 SW 및 AI 활용에 관한 의견 분석
 - 영유아단계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소양교육의 방향 설정과 구체적 정책 제언(디지털 위험에서의 유아보호, 디지털 격차 감소, 유아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개발, 유아와 가족 간의 질적 상호작용 강화, 교육활동 지원 및 질 향상을 위한 교사 전문성 지원) 등을 분석
 - 법과 제도 차원에서의 제언(관련 법, 정부기본계획 추가 및 보완 사항, 누리과정 개정 및 개선 사항, 디지털 인프라 개발 및 지원) 등을 분석

정책 제언

- K-ECEC 디지털 대응을 위한 5가지 주요 정책방향 및 세부과제 제안
- 정책 및 법제도 차원, K-ECEC 디지털 대응 지원 체제 마련 제안
- 디지털 인프라 개발 지원 차원, K-ECEC 디지털 대응 지원 체제 마련 제안
- K-ECEC 디지털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및 관련 정책방향 및 과제
- K-ECEC 디지털 종장기 정책 수립 계획(안)
- 유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법 제도, 교육과정, 지침, 환경에 대한 프레임 제공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II): 부모용 도구 개발 및 가족 지원 방안

김은설, 김아름, 김지현, 김희수, 전효정, 김민정, 고은경, 최일선, 김형미, 김영아, 김예진, 김용진, 최정원

배경 및 목적

- 장애위험영유아 대상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교육 및 보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위험영유아의 선별과 지원이 필요함. 본 연구는 장애위험영유아 선별 및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개발 연구의 2차년도 연구임.
- 장애위험영유아는 조기 발견되고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향후 장애의 정도를 낮출 수 있고 장애가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조기 발견과 개입은 장애위험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지원임.
- 본 연구에서는 부모용 「영유아발달선별검사(K-SEID-P)」를 개발하고 장애위험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부모역량 개발 매뉴얼 또한 개발하고 보급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장애위험영유아 관련 현황, 법, 제도, 선행연구 등 검토
- 설문조사: 영유아 부모 대상 양육 실태, 발달촉진프로그램 이용, 발달지원 요구 파악
- 사례조사: 장애위험영유아 조기 선별, 중재 사업 제공 기관 현장 방문 및 심층 면접
- 정책포럼개최: 연구결과 공유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의 장으로서 포럼 3회 개최
- 전문가 공동 연구: 영아 특수교육 및 장애아 지원 분야 해외 제도 전문가 공동연구 참여
- 협동연구: 부모용 조기선별도구 개발(한국아동학회)과 부모 역량 강화 자료집 개발(한국육아지원학회) 협동 연구 수행

연구결과

- 해외 국가의 장애위험영유아 가족지원 제도
 - 미국: 주요 서비스 제공자(PSP) 모델은 한 명의 주요 서비스 제공자가 중심이 되어 필요에 따라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에게 컨설팅 받음으로써 대상 아동의 필요에 따라 영역의 구분 없이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구조로 실행됨.
 - 독일: 장애위험에 처해 있는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적·의료·치료적 인력을 통해 간학문적 협력 작업을 수행함.
 - 뉴질랜드: 조기 개입 서비스(EIS)는 추가 학습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보육교사 및 가족을 위한 무료 서비스로, 출생부터 초등학교 입학 이전까지 부모, 가족,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참여 및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지원함.



- 부모 요구 분석
 - 자녀의 발달에 관한 정보를 얻는 어려움에 대해 '아동 발달 관련 전문기관 정보 부족' 39.9%, '느린 아이, 문제 행동 육아 지식 정보 부족' 38.4%, '정부 지원 혜택 관련 정보 부족' 31.5%, '발달상태 점검 정보 부족' 31.0% 순임.
 - 지원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어려운 점으로, 대형병원 검사 대기가 깊, 바우처 비용 및 사용처의 제한, 서비스 이용 기관 운영시간 부적절, 프로그램 이용의 고비용, 정보 접근의 곤란, 가족의 이해부족 등이 있었음.
 - 요구하는 정책으로서 맞벌이 가정이 이용 용이한 시간대 프로그램 개설, 기관 간 연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전문적 부모교육 자료 제공, 36개월 이전 영아에 대한 발달 촉진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기함.
- 조기선별 검사도구 개발의 내용
 - 검사도구는 총 375개 문항으로 개발되었으며, 12개월부터 5세까지 총 7개 연령별 문항군으로 구성함.
- 개발한 장애위험영유아 부모 지원 자료집의 주요 내용
 - 장애위험영유아 자녀 발달지표, 수준별 일상생활 및 놀이 지원방법, 기질,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양육태도, 심리적 지원(양육스트레스 관리), 부모효능감 강화(놀이방법 및 발달이 느린 아이 지원방법), 유관기관 및 지원정책 등

정책 제언

- 장애위험영유아 조기(18개월 이전) 선별과 개입 방안
 - 국가 '영유아건강검진'의 내실화
 - 예방 대책: 18개월 이하 영아 대상 감각통합 교육 강화
 - 발달 관찰 점검표 앱 구축과 홍보
- 가족지원 정책 방안
 - 정보 접근성의 제고
 - 영유아발달지원 포털사이트 구축
 - 영유아발달정보 책자의 빈틈없는 제공
 - 접근성을 높인 장애위험영유아 맞춤형 부모 교육
 - 영상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부모교육
 -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 역량 강화 지원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3 (한국아동패널 II)

조미라, 최효미, 김동훈, 김혜진, 강민권

배경 및 목적

-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 II)」는 아동이 출생한 2008년부터 성인이 되는 2027년까지 단일연령집단의 횡단자료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수집, 제공하는 연구임.
-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발달, 가정의 양육환경,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경험 등을 조사하며 수집된 자료를 통해 육아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청소년기에 맞는 조사의 내용과 방식을 검토
- 15차 자료의 클리닝 및 에디팅 작업을 수행하고 기초분석을 실시
- 종단자료를 활용한 패널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심층분석 수행
- 데이터 활용과 홍보를 위한 학술대회(2023년 제14회 학술대회)를 개최
- 패널유지를 위한 진로진학설명회 등 다양한 사업 진행
- 16차 조사내용의 구성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
- 자료 관리 및 사용자 편의제공 강화 논의를 위한 아동패널 유저와의 간담회를 진행
- 조사업체 관리자와 조사원 간담회를 통해 조사 개선방안을 논의

연구결과

- 2023년 중3과정에 들어선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16차 조사 수행함. 아동, 주양육자(보호자), 부, 모, 아동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아동, 부모, 가족, 학교, 지역사회, 정책 영역의 조사함.
 - 최종 1,284가구(아동 1,244명)의 자료를 수집함. 이는 1차년도 조사참여 패널 2,078가구의 61.8%이며, 2023년 조사 시 설정한 유효표본 1,508가구 대비 85.1%, 2022년 조사 완료 수인 1,304명 대비 98.5%임.
- 2022년 조사된 15차 자료로 기초분석을 실시하고, 축적된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심층분석을 수행함.
 - 기초분석은 아동, 부모 및 가구특성, 학교 및 사교육 특성,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별로 수행되었으며, 심층분석은 '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 궤적을 활용한 유형화 분석 및 집단별 특성', '사교육 이용 패턴의 종단적 분석



및 특성'의 두 개 주제로 수행함.

- 제14차 학술대회를 '한국아동패널로 보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since 2008'을 주제로 개최함.
 - 1~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연구논문을 공모·발표하고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를 개최함. 이외 중단연구 방법론 워크숍(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자료의 분석), 인포그래픽 전시(한국아동패널 아동의 과거, 현재, 미래) 등의 세션을 진행함.
- 아동패널 참여 만족도와 패널유지율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함.
 - 패널아동이 고교진학을 앞둔 시점으로 한국갤럽과 한국교육방송(EBS)과 공동 기획하여 진로진학설명회를 개최하고 22년 15차 조사까지 연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가구 대상 감사장 및 감사선물을 증정함.

정책 제언

- 2022년 15차년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미디어 중독 조사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결과 아동과 부모의 응답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므로, 부모, 자녀 간 관점 차이로 갈등과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충분한 인식과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도시지역 아동은 읍·면지역에 비해 학업비중이 높고 관련 스트레스가 높으며, 읍·면지역의 경우는 교육, 의료, 복지, 여가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도시와 읍·면지역 간 차별적 특성이 발견됨. 도시지역 아동의 학업부담 경계 및 읍면지역 편의시설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저소득가구 아동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미디어, 게임 시간이 길고 부모로부터의 교육적 지원이 낮고, 저소득의 경제적 상황은 아동의 조절능력, 부모-자녀 의사소통 등과도 부정적 연관이 나타나는 등 열악한 조건이 포착되었음. 저소득가구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모색이 요구됨.
 - 아동의 성별 격차는 아동의 성장발달과 함께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임. 성별 격차는 생물학적 차이에서 야기된 면도 있지만, 신체적 자아상과 같이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기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교육과 사회적 개입도 필요해 보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3 (Korean ECEC Panel Study)

배윤진, 박은정, 김자연, 조경진, 이혜민, 강민권

배경 및 목적

- 영유아의 발달을 추적해 가는 종단연구는 발달의 안정성, 개인차의 이유, 환경의 역할 등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생애초기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 그 가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의 발달과 그 가족에게 적합한 정책 수립의 방향성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음.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는 태아기부터 신생아, 영아, 유아, 아동 초기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의 양육, 부모의 내·외재적 요인, 기관에서의 교육·보육 경험과 환경적 영향 등 생애 초기 성장·발달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지님.
 - 2023년도 연구를 통해 1세 영아 가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함.
 - 영유아의 성장·발달 및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종단자료가 구축을 통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자료의 틀을 갖춘.

연구방법

- 2차년도 조사를 위한 문헌연구 실시, 전문가 자문회의 및 동료 멘토링 개최
- 조사연구: 가구 방문 면접조사, 부모 대상 우편물/온라인 조사, 어린이집 교사 대상 온라인 조사 실시
- 1차년도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주요 결과 도출

연구결과

- 아동 및 부모 건강
 - 대부분 출산 가정에서 신생아 검사 및 예방접종을 통해 아동의 건강을 위한 예방적 접근이 충실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에 있어 아버지의 10.4%가 잠재적 위험군, 2.5%가 고위험군이었고, 어머니의 경우 12.6%가 잠재적 위험군, 3.7%가 고위험군에 속하였음.
 - 만 25세 미만의 부모의 경우, 또한 심리적, 관계적 취약성을 가지는 비율이 높음.
- 출산 행태 및 양육 특성



- 패널 아동의 출산 시 분만형태는 계획된 제왕절개가 40.5%, 자연분만이 39.3%, 계획되지 않았던 응급 제왕절개가 20.1%이었음. 산후조리원 이용 비율은 86.2%이었음.
- 양육은 거의 모든 가구에서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나, 하루 중 저녁시간대에는 아버지가 돌봄을 담당하는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아짐.
- 출산 전 모유수유를 계획한 어머니는 24.9%, 출산 후 24시간 이내에 모유수유를 시행한 비율은 31%, 생후 7개월부터는 모유수유 비율이 10% 이내로 떨어짐.
- 정책 특성
 - 육아지원정책 방향에 대해 아버지는 '수당이나 비용의 상향'을 원한 반면, 어머니는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 강화'를 원하는 비율이 더 높음.
 - 현금 지원 정책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도는 종일제 아이돌봄(이용권)이며,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정책은 영아수당임.
 - 현물/바우처 지원 정책 중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제도의 중요성도 가장 높게 평가하였음.
 - 시간지원정책의 이용률은 아버지는 약 18% 이하, 어머니는 약 46% 이하로 다른 유형의 지원 정책에 비해 이용 정도가 낮음.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은 제도는 육아휴직이었음.

정책 제언

- (임신·출산 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및 임신기 지원 강화를 통해 부모의 연령이나 취업여부에 따라 물리적·심리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머물지 않도록 지원해야 함.
- (후속 출산을 위한 지원) 양육의 육체적 힘들과 자녀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후속 출산을 막는 사유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완화 및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 (부모의 심리적 건강 지원) 스마트폰 과의존은 가정환경 및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초기 양육시기에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아동 양육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아동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대국민 캠페인이나 부모교육을 통해 적절한 사용을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육아지원제도 활성화) 어머니의 취업률(52.0%)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며,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재택근무, 육아휴직 등 시간지원정책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련 지방 단위 업무 분석

김아름, 최윤경, 심현기, 박유경

배경 및 목적

- 유보통합 추진의 필요성
 - 정부는 올해 1월, 국정과제인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함.
 - 유보통합은 교육체계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유아에게 맞는 질 높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 교육부 국정과제 수행
 - 교육부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은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상반기에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수립하고, 2023년 하반기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준비하기 위한 지방단위의 유아교육·보육 조직 및 업무 분석이 필요하여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음.

연구방법

- 유아교육·보육 지방단위 행정체계 진단
 -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 유아교육·보육 조직 비교 분석 및 진단
 -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 유아교육·보육 업무 비교 분석 및 진단
- 지자체 사례조사
 - 시도청,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사례조사 실시
- 간담회 개최
 -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 유아교육·보육 업무 담당자와의 면담 및 의견수렴을 통한 업무 이관 가능 여부와 관련 요구 파악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 교육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 및 아이행복자문단과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정기적 개최

연구결과

-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로드맵
 - 보육업무는 계속해서 시도 및 시군구에서 관할: 「정부조직법」, 「영유아보육법」 개정 필요
 - 통합모델이 마련되기 전까지 어린이집 성격은 “사회복지시설” 그대로 유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교육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필요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모델 마련: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폐지 후 통합법률 마련. 그 외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등 유관 법률 정비 필요

정책 제언

- 법제화 방안
 - (1단계)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정원을 교육부로 이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데, 보건복지부 관장 사무 중 “영·유아 보육”을 삭제하고, 교육부 사무에 “영·유아 보육”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 (2단계) 지방단위 통합 시 「교육자치법」 개정이 필요한데, 제20조의 시도교육감 관장 사무에 “영·유아 보육”을 추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부금 지원대상에 “영·유아 보육” 추가
- 조직 개편 방안
 - (1단계) 先 중앙, 後 지방의 순차적 이관 방안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육부 장관”으로 일괄 변경. 이에 「영유아보육법」상 중앙단위 지원조직인 한국보육진흥원(제8조)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제7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제31조의2) 등은 교육부로 이관
 - (2단계)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교원대 영유아교육연수원의 기능을 고려하여 교육부 산하에 “(가칭) 한국영유아진흥원” 출범. 지원조직인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은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교육청 산하의 “(가칭) 시도 영유아진흥원”으로 조직구성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분석 및 이관 방안

최효미, 김태우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이하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이 연구는 유보통합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의 통합 혹은 이관이 이뤄져야 하는 부문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효율적인 이관 방안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 문헌 연구: 교육 재정 및 보육 재정의 구조와 현행 재원 분담구조가 가진 특징, 재원 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 등을 정리
- 중앙정부 보육재정, 유아교육 재정, 지자체 보육재정 자료 분석
- 유보통합 관련 재원 분담 구조 및 재원 이관 방안, 재원 이관 관련 주요 쟁점 사항 논의, 법령 개정(안) 도출 및 검토를 위해 총 12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실질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도출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보육 담당자 등과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총 7회 개최

연구결과

- 2023년 유아교육 관련 예산은 누리과정지원이 3조9,480억원(85.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아교육진흥은 6,648억원(14.4%)으로 나타남.
 - 시도별 어린이집 관련 보육 예산은 9조6,620억원으로, 국고지원금 및 국고 대응 예산(2022년 기준)이 8조 697억원이며, 지자체 특수보육시책 예산(2021년 기준)이 1조5,923억원임.
 - 어린이집 관련 전체 예산에서 국고지원금 및 국고 대응이 차지하는 비중은 83.5%이며, 지자체 특수보육시책이 16.5%임.
 - 국고보조금 사업 총 예산은 2022년 기준 8조697억원으로, 국고지원금이 5조418억원(62.5%)이며, 시도 및 시군구가 대응 투자한 금액이 3조279억원(37.5%)이었음.



- 표준보육비용을 적용한 재정 이관 규모 추계
 - 2022년 기준 표준보육비용을 적용한 전체 아동(일반아동 및 장애아동) 대상 어린이집 관련 보육 예산의 연간 추계액은 9조6,003억원임.
 - 표준보육비용을 적용한 연간 추계액(2022년)이 현재 어린이집 관련 보육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4%임.
 - 2022년 어린이집 보육 예산 중 국고보조금(국고지원금 및 지자체 국고 대응분 포함)은 8조697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이 표준보육비용(2022년 기준) 적용 연간 추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1%였음.
 - 표준보육비용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추계액(2022년 기준)에서 국고보조금(국고지원금 및 국고 대응 투자분 포함)을 뺀 차액은 1조5,306억원임. 1조5,306억원은 지자체 특수보육시책(2021년 기준) 전체 예산의 96.1%에 해당하는 금액임.

정책 제언

- 관리체계 일원화 과정에서 기존의 어린이집 관련 예산의 이관 규모와 범위는 3가지 정도로 정리됨.
 - 시나리오 A: 현행 어린이집 관련 보육 예산 전체로, 9조6,620억원임.
 - 시나리오 B: 표준보육비용을 적용한 연간 추계액만큼 이관하는 방안으로, 9조6,003억원임.
 - 시나리오 C: 지자체 특수보육시책 예산은 제외하고, 국고보조금(국고지원금+지자체 국고 대응 투자)만큼을 이관하는 방안으로, 8조697억원임. 국고보조금은 국고지원금 5조418억원(62.5%)과 시도 및 시군구가 대응 투자한 3조279억원(37.5%)으로 구분됨.
- 재원의 이관 방법은 업무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 가정할 때, 재원의 이관 흐름을 중심으로 총 4가지의 방안을 제안함.
 - 시나리오 1: 부담주체별 분담금 전출
 - 시나리오 2: 현행 국고보조금 흐름을 확장한 형태의 이관
 - 시나리오 3: 지자체-교육청 공동사업비 형태
 - 시나리오 4: 지방 교부세 조정(인하)을 통한 이관
- 시나리오를 조합한 방식(이관규모 및 범위 * 이관 방법)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령 개정(안) 예시를 제안함.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 비용 지원 중심으로

양미선, 김동훈, 정유나

배경 및 목적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비용 격차가 나타나는 항목을 추출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둠.

연구방법

- 관련 법 및 제도, 어린이집·유치원 및 영유아 부모 지원 관련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분석함.
- 어린이집 유아반 급간식비 추가 지원을 위해 지역교육청이 지원하는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현황과 지방자치단체가 특수보육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급간식비 지원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
-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 외에 부모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항목과 지원규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
- 방과후 과정비, 급·간식비, 만 0~2세 부모부담 경비(입학준비금) 단가를 산출하고 소요 재정규모를 추계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 총 2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FGI)을 실시함.
- 유보통합추진단과 지역교육청 및 교육청 보육·유아교육 담당 공무원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함.

연구결과

- 방과후 과정비 지원단가 인상 방안
 -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과 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산출기준이 상이하여 공통 지출항목, 즉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정도만을 산출기준에 적용할 수 있음.
 - 1안은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전담교사(교육공무직) 급여기준, 2안은 기본보육과정 이후 배치되고 있는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기준, 3안은 사립유치원에서 적용하는 최저임금 기준을 배치하였고, 근무시간은 4시간(누리과정 이후부터 오후 5시간까지)을 공통 적용함.
 - 교재교구비는 최근 수행한 표준보육비(김동훈 외, 2023)와 표준유아교육비(엄문영 외, 2020)의 교재교구비 산출결과를 활용함.
-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단가 산출
 - 어린이집 만 3~5세 누리과정비에는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간식 2회에 대한 식품비가 포함되어 있고, 급·간식비로 1일 2,500원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유치원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점심 급식 식료품비를 지원받고 있음. 단가는 지역교육청별로 상이하며, 평균 2,600원임.
- 만 0~2세 부모부담경비 지원 항목 추출
 - 생애 최초 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 부모의 입학 준비를 위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가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일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정책 제언

- 방과후 과정보 지원단가 인상
 - 1안은 112,886원, 2안은 92,917원, 3안은 104,648원으로 현행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7만원에서 10만원(공립유치원 7만원) 정도 인상하도록 함.
 - 지원단가 인상을 위한 소요 재정 규모를 추정하면, 현행 지원단가 적용 시 2024년 7,169억원, 2025년 7,776억원, 2026년 6,064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지원단가 인상 시 2024년에는 1조 2,220억원, 2025년 1조 880억원, 2026년 8,643억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
 - 어린이집 만 3~5세 급·간식비 추가 지원을 위해 1안)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질 높은 급·간식 제공, 2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급식비 지원 격차 완화 위해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단가와 어린이집 급식비 지출 기준과의 차액분 추가 지원 목적으로 지원 단가를 산출함.
 - 1안 표준보육비용 급·간식비 단가 2022년 기준 4,128원, 급식비 지출기준 2,500원 간의 차액분 1,628원, 2안 유치원 무상급식 평균 지원 단가(2,600원)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출기준 중 급식비(1,605원) 차액분 995원을 추가 지원함.
- 만 0~2세 부모부담경비 지원
 -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을 최초 입학하는 만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단가는 아동 1인당 5만 원(1회)을 지원함.
 - 상해보험료(영유아 안전사고 대비 어린이집 및 학교 안전공제회, 아동상해보험 가입 등), 전자출결태그, 개인별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 도입 방안 연구

김은설, 유해미, 김재윤, 박유경

배경 및 목적

- 자녀 출산과 양육을 하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촌의 지형적,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여 도시와는 차별되는 농촌의 실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됨.
- 본 연구는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영유아 양육과 보육, 긴급 요구 등 수요에 맞게 지원하기 위한 농촌 맞춤형 보육 모델을 개발하여 중앙정부부처(농림축산식품부)의 '24~'25년도 신규 정책 발굴과 사업화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방법

- 문헌 검토
 - 관련 문헌, 선행연구, 보육실태조사 등 통계 자료를 검토
- 면담 조사
 - 농촌 영유아 부모 면담
 - 여성농업인지원센터 및 어린이집 등 농촌 보육 제공 관련자들 면담
- 설문 조사
 - 농촌 지역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 또는 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진행
 - 관계 부처와의 협의회 개최

연구결과

- 농촌 보육지원 정책 현황 및 국내외 사례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 해외의 긴급 일시 보육정책: 후주의 가정 내 보육(IHC), 일본의 가족지원(패밀리 서포트)
- 부모의 농촌 보육지원 요구 분석
 - 육아 어려움: 의료시설 부족, 긴급·일시돌봄 서비스 부족, 정보공유곤란, 독박육아 및 소외감, 문화시설 접근성 부족



- 보육시설 이용의 애로점: 차량운행이 없으면 등원 어려움, 연장반 부족, 연령별 수업 불가능
- 농촌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자 면담
 - 육아도우미 파견에 대한 회의적 입장
 - 조기보육서비스 제공의 가능성 확인
 - 농번기 아이돌봄방의 성과가 높아 기간 연장 요구

정책 제언

- 긴급·일시 보육 모델 I: 농촌형 육아도우미
 - 다양한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 가정 내 보육서비스(가정파견형 돌봄인력)를 지원하여 가정 내 양육을 선호하는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
- 긴급·일시 보육 모델 II: 육아파트너 가정
 - 일정 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육아파트너 가정'이라는 자격을 부여하여 긴급하고 필요한 시간에 일시적으로 영유아를 돌보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풀(pool)을 만들어 두는 제도
- 농번기 틈새 보육 모델: '조조보육센터'와 '만석보육센터'
 - '조조보육'이란 농촌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가 등원, 등교를 시작하는 정규 시간 이전 이른 아침 시간(오전 6시 30분~8시 30분 사이)에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2학년 이하) 아동을 돌보아 주는 보육 서비스
 - '만석보육'은 유치원, 초등학교, 연장보육이 없는 어린이집 아동의 정규 보육·교육 시간 이후부터 부모 근로 종료 시간까지 돌보아 주는 보육서비스로, 아동이 등록된 원 기관의 차량을 이용하여 만석보육센터로 와서 2~4 시간을 보내고 이후 부모가 와서 데려감
- 일시 돌봄 대체 모델: 농촌육아실내놀이터
 - 키즈카페와 비슷한 개념이나 일시보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놀이, 농촌 지역 부모 간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 활성화 등에 초점
- 농촌 아동 온라인 교육콘텐츠 지원
 - 가정 내에서 영유아 놀이 활동을 지원하여 발달에 적합한 놀이, 체험 교육 등을 개별화된 양방향 대화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장애영유아 국가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방안

박창현, 박은정, 김경희, 이금규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영유아 국가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생애초기부터 평생교육까지 이음새 없이 연결하는 정책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임.
- 국정과제 대응: 유보통합 정책은 20대 대통령 선거의 양당 대선 공약이었으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84번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46번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으로 다루어짐.

연구방법

- 문헌조사, 사례조사: 유보통합(스웨덴, 노르웨이, 대만, 핀란드)/유보분리(프랑스, 미국, 일본) 국가의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정책 검토, 관련 통계과 법제도를 통한 장애영유아 정책 동향 파악
- 전문가 의견조사: 유아특수교육-장애영유아보육계 관련 전문가 40명(유-보 각각 20명)을 대상으로 유보통합 핵심이슈와 관련 정책에 관한 중요도와 실천가능성에 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우선순위와 차순위를 도출
- 자문회의: 정책관계자들(학부모, 학계, 교사단체 등)의 포커스집단면담을 통해 정책 요구사항을 수렴함.
- 정책 토론회 개최
 - 유아특수교육계 핵심관계자 정책 토론회(2023. 7. 28):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다!
 - 장애영유아보육계 핵심관계자 정책 토론회(2023. 10. 13): 장애영유아보육이 그리는 유보통합이야기

연구결과

- 해외 유보통합/유보분리국가의 장애영유아 정책 사례 연구
 -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또는 분리 운영 국가 모두 장애영유아의 교육을 위해 특수교사를 지원하고 있었음. 장애영유아와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 운영과 기관의 유형과 상관없이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유아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지원되어야 함.
-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정책의 우선순위와 차순위 과제 제안
 -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 기관운영, 재원 및 재정지원 체계, 행정 및 전달체계, 법제도,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참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 장애영유아 디지털 정책에 관한 우선 순위와 차순위를 검토함.



- 유보전문가들은 만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법적 당위성 실현 장애영유아의 교육권/교육평등성 보장 등의 이유로 유보통합이 필요하다 하였고, 부처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인 의무교육대상자인 장애영유아의 차별 해소,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유보통합의 주요 방향으로 보았음.

정책 제언

- 국가책임교육 기반,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실현 유보통합의 방향과 과제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와 차순위 정책 방향과 과제 제언
 - 교사자격 양성체계(자격양성 정원 방향,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유아특수교사 자격 획득방법), 기관운영(기관 유형 및 신설, 0~2세 장애영아, 교육과정/방과후과정 운영, 교직원 배치/운영), 자원 및 재정지원 체계, 행정 및 전달체계(장애조기선별 시스템 구축, 전달체계 통합연계, 행정 시스템 전문화), 법제도(현행 유지 및 기존 제도개선, 통합법 마련 시, 정부조직법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 정책결정과정 및 부모/국민참여(유보통합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소통 및 참여, 교육부 및 유보통합추진위, 자문단, 정책연구기관 의사결정과정 및 구성/대표성의 문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 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영역별 세부정책 제언
- 유아특수교육계와 장애영유아보육계가 요구를 반영한 정책과제 중심의 실행 단기/중기/장기 로드맵 제시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환경 조성 방안

도남희, 최호미, 윤소정, 권기남

배경 및 목적

- 어린이집에서의 권익침해 사건들로 인해 2018년 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살사건, 2020년 세종어린이집 보육교사 자살사건 등 연이은 사건들로 보육교사의 직무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되고 보육교사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육교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임.
- 본 연구는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파악하고 보육교사로서의 교육권과 신분 보장권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보육교직원의 지위 보장 및 자체적으로 어려운 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연구방법

- 문헌 연구 및 관련 법령 검토
- 심층면담 실시: 보육교사 면담 3회, 원장 면담 2회, 학부모 4회
- 설문조사(웹조사) 실시: 보육교사 1,242명, 학부모 500명
- 보육교직원 고충 처리 및 분쟁 조정 절차 관련 사례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연구결과

-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직원의 권리 인식
 - 교사들은 아동 중심의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 고민
 - 학부모들은 보육교사들의 사생활 존중, 휴가 사용 보장, 교육권 등의 교사로서 권리가 보장받아야 한다고 인식
-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에 대한 실태와 요구
 -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이 높음
 - 한편 학부모들은 보육교사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보육교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 개선' 강조
- 보육교직원 상담 및 고충처리 서비스



- 다양한 보육교직원 상담 제공 서비스 등이 있으나 일반적인 노무 상담이나 일시적인 상담 수준에 머무는 한계
- 고충처리서비스와 분쟁 조정기관 등도 있으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담 인력이 없고 구속력이 낮다는 한계

정책 제언

-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법적 근거 마련
 - 보육교직원 지위 보장,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보육교직원 대상 권리보호 교육 실시
- 보육교직원 관련 제도·기구 마련
 -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통합 지원, 보육교직원 분쟁조정 제도 마련, 전담 기구 설치와 전담 인력 배치
-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홍보 강화
 -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익광고 제작,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확산, 부모 가이드라인 작성과 배포
- 보육교직원 건강 지원
 - 보육교직원 신체건강 지원, 보육교직원 정신건강 지원, 건강지원 서비스 강화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이윤진, 김자연, 조혜주

배경 및 목적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육아정책으로, 영아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2년차에 접어드는 ‘첫만남이용권’의 정책수요자(부모/보호자) 대상으로 이용실태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개선점을 모색함으로써 정책의 안정화, 고도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연구방법

- 설문조사
 - 2022년 조사와 동일하게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소지자 2,000명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연령, 권역 비례 할당)
- 면담조사
 - 집단면담조사(FGI)와 개별심층면담조사(IDI) 병행 실시(총 11명)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안과제 담당 공무원과 수시로 (온라인)회의로 설문지, 설문조사 설계, 정책방안 등 검토
- 전문가자문회의: 설문조사 전과 후로 자문회의 목적을 달리하여 실시
 - 설문조사 전: 사회조사 전문가(4명) 대상으로 설문문항 타당성에 대해 검토
 - 설문조사 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첫만남이용권 사업 발표) 정책운영위원회 위원 자문
- 문헌연구

연구결과

- 첫만남이용권 이용 실태
 - 산후조리원(58.2%), 육아용품(15.1%), 의료비(14.5%), 식·음료비(13.5%), 생활용품(5.1%) 순으로 나타남.
 - 육아용품, 의료비, 식·음료비는 해당 자녀를 위해, 산후조리원은 본인(부모)과 해당 자녀 모두를 위해, 생활용품은 가족(본인포함)을 위해 사용했다고 응답함.
- 첫만남이용권 만족도(5점 척도)



- 신청방법 4.49점, 이용 기간 4.40점, 이용 가능 품목 4.36점, 전반적인 만족도 4.47점으로 나타남.
- 2022년 만족도 조사와 비교하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95.8%(2022년)에서 85.8%(2023년)로 하락함. 가계 경제의 도움 정도에서도 2022년 81.2%에서 2023년 71.6%로 하락함.
- 2022년에 비해 대체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정책수요자들에게 '기분좋은 정책'으로 호응도가 높음.
- 첫만남이용권 불만족한 이유
 - 금액 부족(77.1%)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용처 제한(32.7%), 자녀 출산 후 발급(27.8%), 신청 후 바로 지급되지 않아서(25.7%) 순으로 나타남.
- 첫만남이용권과 추가출산 계획
 -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약 76%임(2022년에는 60.9%). 1명 추가 출산 응답도 2022년 34.7%에서 20.7%로 하락함.
 - 그러나 추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의 경우, 첫만남이용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정책수요자가 희망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
 - 금액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자에게 오픈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594.69만원(중위값 500만원, 최소 201만원, 최대 1억원)임.

정책 제언

- 현행처럼 일시 지급, 사용기간(발급 후 1년 내 소진), 사용처 극히 일부 제한 등의 운영방식 유지
- 정책의 안정성 점검 차원에서 매년 만족도 조사 실시
 - 인구감소 및 소멸 지역의 우려가 크므로 지역규모별 분석 필요
- 첫만남이용권 발급 시기가 개인별, 지역별 차이가 있는 데 이를 해소하여 사용의 편리성 제고 필요
- 보다 정확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의 사용처 파악을 위해서는 카드 사용 데이터 분석 필요
 - 2022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분석한 카드 사용처와 설문조사 결과의 1순위에서 차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조미라, 박은정

배경 및 목적

-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인지와 활용은 저조함.
- 이용자인 부모(근로자)의 관점에서 이용욕구와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제도가 활용되는 기업의 여건 파악이 요구되나, 기존 연구들은 제도 수요자인 근로자의 관점이거나 제도를 적용하는 기업의 관점 일방에서 수행되어 온 것이 대부분임.
- 이에 본 연구는 정책대상인 부모(근로자)와 제도가 활용되는 사업체에 양측에 대해 제도의 활용 실태와 경험을 모두 다루어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선행연구 및 외국 제도, 사례(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검토
- 행정통계 및 조사 자료 분석: 모성보호제도 활용 관련 실태조사,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및 관련 선행연구 등의 조사자료 분석
- 면접 조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경험자 및 무경험자 대상 면접 조사(6개 집단 총 22명의 부모) 및 사업체 담당자 면접 조사(5개 기업 개별면접)
-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결과

- 제도의 이용현황 분석 결과
 - 2020년을 기점으로 제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용률과 인지도가 낮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자는 2022년 19,466명으로 2021년의 16,689명과 비교해 16.6% 증가했지만, 대상기준이 동일한 육아휴직과 비교 시 2022년 육아휴직 이용자 수 131,129명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 수급자는 14.8%임.
- 외국 제도 및 사례검토
 -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 모든 근로자 대상의 근로시간 단축제가 활성화 되어 있음. 독일, 스웨덴은 육아



휴직의 부분적인 형태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이용경험 분석 결과
 - 일 1~2시간 단축이 일반적이며, 육아휴직 후 전일제 복귀전 적응, 유아의 등·하원, 초등저학년 등·하교 지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많음. 육아휴직의 부수적 제도로 인식함.
- 사업체의 적용경험 분석 결과
 -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과 1~2시간의 단시간 단축이 많아 대체인력 채용은 부적절함. 그렇기에 동료들의 지원과 헌신이 요구됨. 전반적으로 전일제근무 중심의 일 패턴이 고착화되어 있음.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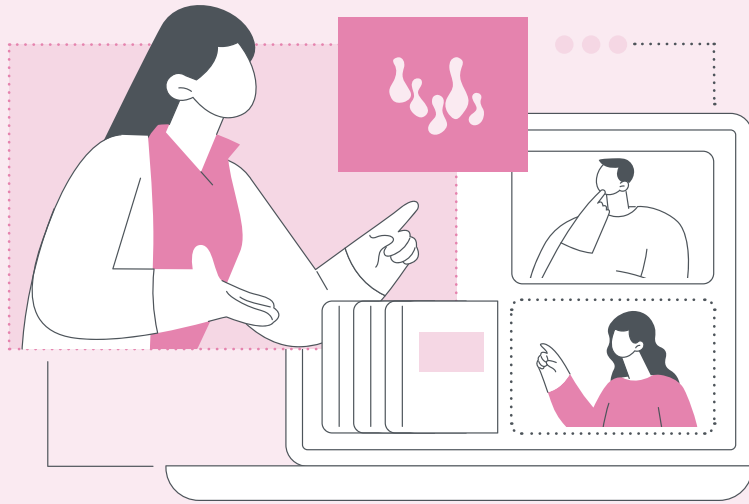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의 정책방향
 - 제도 이용의 장애요인 최소화를 통한 실효성 담보
 - 제도 인지도 제고 및 인식개선을 위한 대대적 홍보 필요
 - 유연근무 확대, 장시간노동 지양 문화로의 모색
- 근로자(부모) 대상 세부추진 과제
 - 사업주의 불허 및 불리한 처우 등 제도 불이행시 근로자의 구제절차에 대한 안내
 - 적용범위 및 급여 확대, 차년도 연차연계 금지 등을 통한 제도 이용률의 제고
- 사업체 대상 세부추진 과제
 - 사업주의 제도 신청대상 직원에 대한 급여 안내 및 고지 의무화
 - 근로자의 제도 신청 시 사업주의 허용 예외조항에 대한 제한 및 허용에 대한 통지 의무화
 - 사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방지규정의 기준 명확화
 - 사업주/인사관리직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 모색
- 여건 조성을 위한 세부추진 과제
 -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지원
 -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교육 및 홍보의 강화(근로자(부모), 동료(부서 내), 인사관리담당자/사업주, 일반대중 대상)

P A R T

III

2023년도 주요 활동

육아정책 관련 연구성과를
홍보 및 확산하기 위해
국내외 세미나 개최, 간행물 발간,
정책 네트워크 운영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
-
주요 간행물

육아정책 심포지엄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주요 현안과 쟁점에 대한 원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동향 공유 및 토론을 통한 정책대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의 주요 학술행사이다. 2023년도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총 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유아교육 및 보육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아동권리 보장 및 학대 예방,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정책,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및 데이터 기반 정책 강화와 관련된 논의를 위하여 정책관계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고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공동주최기관	주요 참석자
제1차	2023. 5. 12(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유아교육·보육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정경희 의원실	발표 박창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정재은 교수(동양대) 장정윤 교수(강남대) 유구중 교수(국립 강릉원주대) 손찬희 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제2차	2023. 7. 5(수)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아동 권리 보장과 학대 예방		발표 김아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김자연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김형모 교수(경기대) 배건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승미 교수(서울대학교병원) 한은희 부연구위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3차	2023. 12. 12(화) 유네스코회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정책 방안 모색		발표 조미라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김동훈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정성미 센터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대이더센터장) 이재희 팀장(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 김나영 팀장(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
제4차	2023. 12. 14(목)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영유아 양육지원 고도화를 위한 전제: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 및 데이터 기반 정책 강화		발표 이정원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황옥경 교수(서울신학대) 안현미 소장(돌봄정책&센터 연구소) 안재진 교수(가천대) 오미애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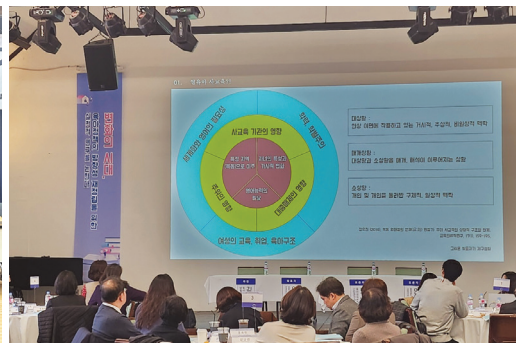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육아정책연구소는 다학제간 융·복합 연구기반을 통한 선도적 육아정책 개발과 선제적 이슈 발굴 등을 위해 유관 부처, 연구기관, 학회, 시민단체, 언론 등 44개 기관으로 구성된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제1차 포럼은 김선교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저출생 시대에 지역 육아정책이 나아가야 할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차 포럼에서는 이슈 연구 발표,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성과 및 연구주제 빅데이터 결과 보고, 참여기관의 육아정책 관련 주요 의제 및 향후 연구(사업) 방향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공동주최기관	주요 참석자
제1차	2023. 4. 18(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육아정책 중심으로	김선교 의원실	발표 김나영 팀장(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 박태순 팀장(광주여성가족재단 인구고용정책팀) 토론 김인경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황지수 교수(서울대) 전지훈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정정희 회장(한국유아교육학회)
제2차	2023. 11. 22(수) 정동1928 아트센터 컨벤션홀	변화의 시대, 육아정책의 방향성 재정립을 위한 실천적 연구를 논한다		발표 이효림 교수(경북대) 이재희 팀장(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 김나영 팀장(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 토론 도남희 선임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안세아 연구위원(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기관 발표 학회, 지역연구기관, 언론 총 14곳



제1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KICCE 정책토론회

육아정책연구소는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제13차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제6차, 제7차 행사는 ‘디지털 포럼’으로 진행되었다. 김미애·강민정 의원실을 비롯하여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한국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공동주최기관	주요 참석자
제1차	2023. 5. 18(목) 국회도서관 대강당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김미애 의원실, 한국환경연구원	기조강연 이창훈 원장(한국환경연구원) 발표 문무경 실장(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데이터정책실) 정다운 연구위원(한국환경연구원) 토론 이재영 교수(공주대, 전 국가환경교육센터장) 김대희 교수(한국환경교육학회, 순천대) 박월진 팀장(서울특별시청 기후환경정책과) 염정윤 단장(한국환경연구원 환경교육연구단)
제2차	2023. 7. 28(금)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 하다!	주최 강민정 의원실 주관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육아정책연구소 후원 교육부 외	발표 김경민 교수(중부대) 정원화 정책실장(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박신영 장학관(경기도교육청) 김현숙 회장(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토론 이은미 회장(청주 오름벗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모임) 신인수 교장(수도사랑의 학교) 정길순 교사(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 이병승 연구관(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제3차	2023. 10. 13(금) 포스트타워 1006회의실, 온라인 생중계(YouTube)	장애영유아보육이 그리는 유보통합 이야기		토론 원종례 교수(한경국립대) 김수진 교수(연성대) 권영화 회장(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류미희 고문(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이혜연 고문(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박은정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김경희 교수(중부대)
제4차	2023. 10. 26(목) 정동1928 아트센터 컨퍼런스룸	영아유기 예방 및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 윤수경 박사(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차선자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자연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이세원 교수(국립 강릉원주대) 임성은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아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이주연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차 KICCE 정책토론회



제2차 KICCE 정책토론회



제3차 KICCE 정책토론회



제4차 KICCE 정책토론회

구분	일시/장소	주제	공동주최기관	주요 참석자
제5차	2023. 11. 7(화)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모두가 행복한 유치원을 위한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운영 방향 및 정책과제		발표 김은영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구자연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김정희 원장(위례새초롱유치원) 유청옥 원장(새싹유치원) 조숙인 학부모(예일유치원) 김혜원 교수(영남대) 이미화 장학사(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유아교육팀) 서유현 원감(서울홍제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박신욱 교수(경상국립대) 김법연 교수(고려대) 김용 교수(한국교원대) 하봉운 교수(경기대)
제6차	2023. 11. 10(금)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1차 디지털 포럼: 유아 AI, SW교육, 논쟁과 해법은?: 안전 vs. 창의 프렘임 넘어서기		발표 김연경 교수(한국교원대) 토론 이병호 교수(덕성여대) 마대성 교수(광주교대) 김원배 교사(포일사과나무유치원) 황보영 교육연구관(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제7차	2023. 11. 16(목)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2차 디지털 포럼: 포스트휴먼 유아 그리고 디지털: 모두를 위한 페 다고지		발표 동품임 교수(창원대학교) 토론 김영아 원장(LG키즈&SOL 어린이집) 장정윤 교수(강남대) 이지선 정책위원(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박찬우 교수(나사렛대)
제8차	2023. 11. 17(금)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2 회의실	서울 유아교육 이야기: 유아교육비에서 유아학교까지		토론 이인숙 원장(서울꿈동산아이유치원) 김경미 원장(햇빛유치원) 박수진 원장(나랑유치원) 박태규 이사장(한양제일유치원) 이은진 학부모(한양제일유치원) 김은주 학부모(슬기유치원)
제9차	2023. 11. 21(화) 유네스코회관 유네스코홀	유보통합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김미애 의원실	발표 문무경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엄문영 교수(서울대) 토론 김민희 교수(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대구대) 김용 교수(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장) 정재훈 교수(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서울여대) 정정희 교수(한국유아교육학회, 경북대) 정효정 교수(한국영유아보육학회, 중원대) 김태희 장학관(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진길용 팀장(서울특별시청 영유아정책팀)



제5차 KICCE 정책토론회



제6차 KICCE 정책토론회



제7차 KICCE 정책토론회



제8차 KICCE 정책토론회



제9차 KICCE 정책토론회

KICCE 정책토론회

구분	일시/장소	주제	공동주최기관	주요 참석자
제10차	2023. 11. 22(수) 페럼타워 세미나실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이직 및 처우개선		발표 최은영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황옥경 교수(서울신학대) 이상희 교수(공주대) 오채선 교수(한국교원대 영유아교육연구소) 정경진 센터장(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윤서연 교사(연일어린이집) 전송이 교사(경동유치원)
제11차	2023. 11. 28(화) 포스트타워 스카이홀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지원 방안		발표 조속인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이정아 소장(더관계연구소) 토론 박현선 교수(세종대) 이상정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혜림 교수(서울장신대)
제12차	2023. 12. 11(월) 정동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 도남희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김동훈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권혜진 교수(나사렛대) 마미정 센터장(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김혜금 교수(동남보건대)
제13차	2023. 12. 15(금) 포스트타워 스카이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유아 가구 및 발달 변화		발표 최효미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우석진 교수(명지대) 이영애 교수(숙명여대) 박희현 교수(동신대) 최은영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윤정환 부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고영우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김은영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이경옥 교수(덕성여대) 정윤경 교수(가톨릭대)



제10차 KICCE 정책토론회



제11차 KICCE 정책토론회



제12차 KICCE 정책토론회



제13차 KICCE 정책토론회

국제세미나 및 간담회

육아정책연구소는 2022년 레고 그룹과 MOU를 체결한 이래 지속하여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놀이를 통한 배움: 부모 인식 개선과 놀이 역량 강화’ 웨비나를 기획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회원국 30여 개국이 2021년부터 지난 2년간 참여한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a Digital World’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인 「Starting Strong VII: Empowering Young Children in the Digital Age」를 국내에 론칭하고, 그 주요 결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OECD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외 에도 세이셸 IECD,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청 및 대통령 산하의 교육 연구기관, 덴마크 Design School Kolding, 미국 Bach Family Foundation & Trust와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 정책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을 진행하였다.

구분	일시/장소	공동주최기관	주제 및 주요 참석자
IECD, Seychelles-KICCE Seminar	2023. 2. 10(금)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발표 문무경 국제교류·데이터정책연구실장, 김은영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육아정책연구소) Shirley Choppy(IECD)
Uzbekistan Agency of Preschool Education-KICCE 간담회	2023. 4. 26(수)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참석 박상희 소장 문무경 국제교류·데이터정책연구실장 조숙인 국제교류연구팀장(육아정책연구소) Nodir Muslitdinov 부청장 Khurshid Buriyev 고문관(Agency of Preschool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덴마크 Design School Kolding 국제 세미나	2023. 5. 2(화)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주제 Play Design for Young Children 발표 Helle Marie Skovbjerg 교수 Jess Uhre Rahbek 교수 Sofie Kinch 교수(Design School Kolding) 토론 문무경 국제교류·데이터정책연구실장(육아정책연구소) 조숙인 국제교류연구팀장(육아정책연구소)



IECD,
Seychelles-KICCE Seminar



Uzbekistan Agency of Preschool
Education-KICCE 간담회



육아정책연구소-덴마크
Design School Kolding 국제 세미나

국제세미나 및 간담회

구분	일시/장소	공동주최기관	주제 및 주요 참석자
The LEGO Foundation-KICCE Webinar: Learning through Play IV	2023. 6. 14(수) 온라인(ZOOM)	The LEGO Foundation	주제 Fostering playful parent: Bridging the gap in parents' perception and empowering engagement in play 발표 조숙인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Patricia Castanheira 박사(LEGO Foundation) 토론 Sirene Lim 교수 Cynthia Lim 교수(LEGO Foundation) Samantha Page 대표(Early Childhood Australia)
육아정책연구소-Bach Family Foundation & Trust-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간담회	2023. 7. 14(금)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참석 박상희 소장(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국제교류·데이터정책연구실장(육아정책연구소) 조숙인 국제교류연구팀장(육아정책연구소) Elijah Bach 이사장(Bach Family Foundation & Trust) 강대중 원장(국가평생교육진흥원) 권재현 대학·학생평생교육본부장(국가평생교육진흥원) 권선화 전국학부모지원센터장(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OECD 국제세미나	2023. 8. 25(금)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실	주관 육아정책연구소 후원 교육부	주제 Empowering Young Children in the Digital Age 발표 Yuri Belfali 국장(OECD 파리본부) 토론 조운주 교수(한국교통대) 최윤미 연구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황선이 장학사(경기도교육청) 박창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Uzbekistan Republican Scientific-Methodological Center for Development of Education-KICCE 간담회	2023. 9. 14(목)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참석 문무경 국제교류·데이터정책연구실장(육아정책연구소) 조숙인 국제교류연구팀장(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육아정책연구소) Saidjon Tojiboev 과장(Republican Scientific-Methodological Center for Development of Education)



The LEGO Foundation-KICCE Webinar: Learning through Play IV



육아정책연구소-Bach Family Foundation & Trust-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간담회



육아정책연구소 KOREA-OECD 국제세미나



Uzbekistan Republican Scientific-Methodological Center for Development of Education-KICCE 간담회

한국아동패널 및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학술대회

육아정책연구소는 8월 25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첫 학술대회로 김봉년 서울대 교수가 아동기 초기까지의 주요 발달과업인 애착, 자기조절, 공감의 발달과 그 발달을 돕는 양육자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기초 강연을 진행하였다. 2부 주제발표에서 연구에서 2021~2022년도에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들을 발표하였다.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는 9월 9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였으며, 본격적 청소년시기인 중학교 1학년의 데이터가 처음 공개·제공됨으로써 영유아기에서 아동기를 포함해 청소년기에 이르는 종단연구 발표가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화여대 김수영 교수가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학술논문에서 활용되는 통계방법인 잠재성장모형에 대해 통계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논문발표는 성장발달, 미디어, 부모, 학교생활 및 적응의 4개 주제 8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도미향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이강이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전효정 동아대 아동학과 교수,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나리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차승은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세션별 좌장으로 발표 및 토론을 이끌었다.

구분	일시/장소	주요 참석자
제1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학술대회	2023. 8. 25(금) 대한상공회의소	주제 패널 연구 로 조망하는 아이와 부모의 성장, 그 출발선에서 기초강연 영-유아-소아로 이어지는 뇌의 발달 및 발달과업과 양육자의 역할 (김봉년 서울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 주제발표 이정림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김희선 교수(동국대 일산병원 산부인과) 토론 민소영 센터장(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최안나 센터장(중앙남입·우울증상담센터)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2023. 9. 8(금)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아동패널 소개 조미라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통계워크숍 김수영 교수(이화여대) 논문세션 성장발달 I (집행기능)· II (장애, 보건), 미디어 I (미디어 기기 중독)· II (사이버 비행인식/괴롭힘) 부모 I (자녀양육)· II (일가정 양립) 학교생활 및 적응 I (교사)· II (전환기)



제1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학술대회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포럼

육아정책연구소는 연구성과 공유 및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행사를 진행하였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아이행복 연구자문단과 공동으로 주관한 포럼 2회, 육아정책연구소 유보통합추진지원단이 주최한 유보통합 정책세미나 1회를 개최하여 유보통합 관련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수탁연구과제인 「2023 누리과정 포털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유아 사교육과 관련된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본 행사는 아이누리포털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하였다. 경제·사회인문연구회 협동연구 「육아정책분야 국제개발협력 마스터플랜 수립」의 일환으로 세계지역별 17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부문 개발협력 수요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발협력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 국제정책대학원, ARNEC, ICESCO와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의 2023년 기본과제인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II):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중심으로」 연구의 일환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공유하였다.

주제	일시/장소	공동주최기관	주요 참석자
제1차 KICCE 유보통합 정책 세미나: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이해	2023. 7. 17(월)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발표 홍근석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하봉운 교수(경기대) 손아영 선임연구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토론 윤태섭 교수(충북대) 박재철 팀장(경기도청) 김민희 교수(대구대) 채순희 장학관(경상북도교육청) 최효미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유보통합 교원자격·양성 체제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보육 전문가 포럼	2023. 7. 24(월) 서울교대 사향문화관	주최 교육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 주관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육아정책연구소	[주제1] 영유아 교사·원장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 발표 손승희 교수 (4년제보육교사양성대학교수 대표, 한국아동학회) 손혜숙 교수(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이승하 교수(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김대욱 교수(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신나리 교수(한국보육지원학회) [주제2] 영유아 교사 처우개선 방안 발표 황성원 교수(한국보육학회) 이병래 교수(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정효정 교수(한국영유아보육학회) 임혜성 교수(한국유아교육학회) 조운주 교수(한국육아지원학회)



제1차 KICCE 유보통합 정책 세미나



제2차 KI 유보통합 교원자격·양성 체제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보육 전문가 포럼 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주제	일시/장소	공동주최기관	주요 참석자
KICCE 개발협력 정책세미나: 양질의 포용적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개발협력 수요 진단과 협력 방안	2023. 7. 25(화)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주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육아정책연구소, KDI 국제정책대학원, ARNEC, ICESCO	발표 김태종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Cliff Meyers 박사(ARNEC) 김성봉 박사(ICESCO) 문무경 선임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손옥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이경 교수(중앙대) 김수원 교수(한국외대) 강우철 박사(한국수출입은행) 조우진 센터장(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혜진 과장(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유보통합에 따른 교육·보육과정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 시 방향 모색을 위한 1차 정책포럼	2023. 8. 17(목) 이화여대 교육관B동 B153호	주최 교육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 주관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육아정책연구소	과제소개 김은영 선임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발표 이정옥 교수(덕성여대) 김혜금 교수(동남보건대)
2023년 KICCE 정책세미나: 아버지의 행복한 육아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2023. 11. 7(화) 포스트타워 스카이홀		발표 조미라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이현아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박은정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함선우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선형 연구위원(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강민정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 유아교육 포럼: 유아 사교육에 대한 우리의 책무는 무엇인가	2023. 11. 24(금) 서울역 KTX 대회의실, 온라인 생중계 (YouTube)	주최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주관 육아정책연구소	발표 박은혜 교수(이화여대) 임동선 교수(이화여대) 최나야 교수(서울대) 토론 김은영 선임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KICCE 개발협력 정책세미나



유보통합에 따른 교육·보육과정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 시 방향 모색을 위한 1차 정책포럼



2023년 KICCE 정책세미나



2023 유아교육 포럼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을 위한 연구 포럼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대책 방안(II): 부모용 선별도구 개발 및 가족 지원 방안’ 수행의 일환으로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을 위한 연구 포럼’을 연간 연속 시리즈로 기획하였다. 2023년에는 총 3차에 걸쳐 포럼을 진행하였다. 1-2차 포럼은 장애위험영유아의 조기 선별 방안, 해외 국가의 장애위험영유아 가족 지원 사례에 중점을 두었고, 마지막 3차 포럼은 영유아 장애위험 선별도구 개발과 가족 중심 지원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주제	일시/장소	주제 및 주요 참석자
2023년 제1차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을 위한 연구 포럼: 장애위험영유아의 조기 선별과 가족 지원 방안	2023. 7. 17(월) 포스트타워 스카이홀	발표 김은설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강현미 박사(건축공간연구원) 토론 박소영 교수(한국교통대) 박지연 교수(이화여대) 정효정 교수(중원대) 최진희 센터장(서초아이발달센터)
2023년 제2차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을 위한 연구 포럼: 장애위험영유아 가족을 위한 해외 국가의 지원제도 이해	2023. 9. 15(금)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발표 김예진 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Davis, MIND Institute) 김용진 외래교수(강남대) 최정원 책임연구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토론 김수연 교수(경인교대) 황주희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지책연구센터) 김은영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2023년 제3차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을 위한 연구 포럼: 영유아 장애위험 선별 도구 개발과 가족 중심 지원	2023. 12. 8(금) 포스트타워 스카이홀	발표 전효정 교수(한국아동학회장, 동아대) 최일선 교수(한국육아지원학회장, 경인교대) 김은설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이경옥 교수(덕성여대) 이혜연 고문(전국장애영유아부모회) 박선영 원장 (자연선소아청소년과·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보험이사·대한발달의학협회장



2023년 제1차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을 위한 연구 포럼



2023년 제2차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을 위한 연구 포럼



2023년 제3차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을 위한 연구 포럼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구축 포럼 및 워크숍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도 수탁과제 ‘공공택지 내 아이돌봄 인프라 개선을 위한 통합돌봄 거점 구축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구축 포럼을 개최하였다. 총 2차례로 진행된 포럼은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또한 의정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 고산지구에 처음 문을 열게 되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향후 실수요자인 부모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주제	일시/장소	주요 참석자
2023년 제1차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구축 포럼: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구축과 통합돌봄의 구현	2023. 7. 21(금) 정림건축 김정철홀	발표 최윤경 선임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인천광역시의회) 박진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우지성 본부장(정림건축) 토론 이상희 센터장(한국교육개발원) 황진구 선임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재연 교수(가천대) 강현미 부연구위원(건축공간연구원)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형 워크숍	2023. 8. 19(토) 고산 청소년센터	참여 영아와 유아,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 30여명
2023년 제2차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구축 포럼: 돌봄간막이를 넘어선 미래 돌봄, 아동통합돌봄거점의 단계적 실현을 말한다	2023. 11. 17(금) 전경연회관 루비홀	발표 권미경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우지성 본부장(정림건축) 토론 이해숙 선임연구원(서울연구원) 배건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최민아 수석연구원(토지주택연구원)



2023년 제1차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구축 포럼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형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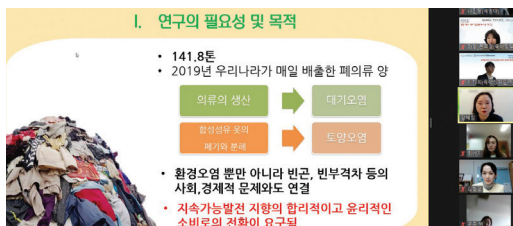


2023년 제2차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구축 포럼

유관기관과의 공동 개최 학술행사

육아정책연구소는 연구성과의 확산과 정책화 노력을 위하여 학계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육아정책 관련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사회복지법제학회 등이 주최하는 다양한 학술행사 세션을 구성하여 수행과제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행사명	일시/장소	주최 및 주관기관	주제 및 주요 참석자
한국유아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공동세션	2023. 3. 25(토) 온라인 생중계 (ZOOM)	주최 한국유아교육학회 세션 한국유아교육학회, 육아정책연구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제] 영유아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제와 향후 과제 발표 1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워싱턴반 이야기 (김은혜 계명대 교수, 나민영 계명대 박사과정) 발표 2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지향동물복지교육 실천 (최예지 아이벌어린이집 원장, 문미숙 대구유치원 부원장, 이경남 대구법원어린이집 원장, 이재순 국공립 다원어린이집 원장, 김은혜 계명대 교수) 발표 3 생태주의 그림책의 세계관 분석을 통한생태 불안 (eco-anxiety) 논의(김현경 경인고대 박사) 발표 4 지속가능발전 지향 유아 소비자교육에 대한 탐색 (김은혜 계명대 교수, 강혜림 계명대 박사과정) 토론 서기준 선임전문관(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재희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페널 세션	2023. 5. 19(금)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주최 한국다문화교육학회 세션 육아정책연구소	[주제] 유아교육에서의 다양성 지원 정책과 실제 발표 1 How to support non-Chines speaking ethnic minority children's learning in kindergarten using culturally responsive practices in education (Kevin Kien Hoa Chung 교수, 홍콩 The Educ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발표 2 Supporting diversity and multilingualism in Belg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Michel Vandebroek 교수·Brecht Peleman, 벨기에 겐트대학) 발표 3 Issu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pre-service teacher training curriculum in Japan (Riyo Kadota 교수, 일본 세이난 가쿠인 대학) 발표 4 Challenges of early childhood adaptation in Korean society for immigrant familie (박원순 박사,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유아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공동세션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페널 세션

행사명	일시/장소	주최 및 주관기관	주제 및 주요 참석자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공동세션	2023. 11. 24(금) 제주메종 글래드호텔	주최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세션 육아정책연구소	발표 1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 (김지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발표 2 영유아기 문제행동에 대한 최근 시각과 긍정적 행동지원 (최윤희 광운대 교육대학원 교수) 발표 3 보육현장의 장애위험영유아 실태와 정책적 대안 (배성현 단국대 특수교육대학원 교수) 토론 정효정 회장(한국영유아보육학회) 정정희 회장(한국유아교육학회) 김정연 회장(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연합회)
제5회 사회복지법제 연합포럼: 아동기본법 세션	2023. 12. 20(수) 여의도 이룸센터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사정군수구청 장협의회,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소비자원, 육아정책연구소, 생존신호정보연구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사)사회복지법제학회 후원 한국장애인재단, (사)자치법연구원, 주3KCNS	발표 1 아동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차선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2 아동기본법 제정시 후속입법 개정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고완석 팀장(굿네이버스) 강미정 팀장(세이브더칠드런) 배건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공동세션



제5회 사회복지법제 연합포럼

KICCE 육아정책 DATA 콜로키움

육아정책연구소는 2021년부터 연구주제 발굴과 더불어 연구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자 DATA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2회에 걸쳐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제3회에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와 통계청 통계등록부 연계 공동 구축 및 활용 거버넌스, 제4회에서는 행정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한 활용 방안 및 정책사업 대상 패널 연구의 가치와 특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향후에도 연구소는 KICCE 육아정책 DATA 콜로키움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데이터 관련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을 수립할 역량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주제	일시/장소	주요 참석자
제3회 KICCE 육아정책 DATA 콜로키움	2023. 6. 27(화)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발표 최현수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4회 KICCE 육아정책 DATA 콜로키움	2023. 11. 14(화)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발표 장희선 부연구위원(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제3회 KICCE 육아정책 DATA 콜로키움



제4회 KICCE 육아정책 DATA 콜로키움

업무협약

육아정책연구소는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활발히 체결하여 연구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3년에는 국내외 3개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였고, 실제 연구 수행 및 협력, 세미나 개최를 활발히 실시하였다. ICESCO,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외를 대상으로 연구 저변의 확대와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일시	협력기관	협약내용
2023. 2. 23(목)	이슬람세계교육 과학문화기구 (Islamic World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CES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이슈와 연구 결과 공유 유아교육·보육 분야 관계자의 리더십 및 전문성 개발 유아교육·보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제회의 및 심포지엄 공동개최 공동연구에 기반한 유아교육·보육 정책 관련 간행물 발간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한 협력
2023. 12. 20(수)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위험 및 장애를 가진 영유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연구 개발 및 추진 협력 언어 및 인지 발달 지연 영유아의 진단, 상담, 치료 등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
2023. 12. 20(수)	대한아동병원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위험 및 장애를 가진 영유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연구 개발 및 추진 협력 언어 및 인지 발달 지연 영유아의 진단, 상담, 치료 등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



이슬람세계교육 과학문화기구
(Islamic World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CES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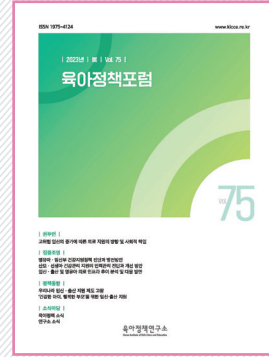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육아정책포럼

육아정책포럼은 육아 관련 현안 정책과제를 분석하는 '집중조명'과 국내외 육아정책동향을 담은 '정책동향' 등으로 구성된 계간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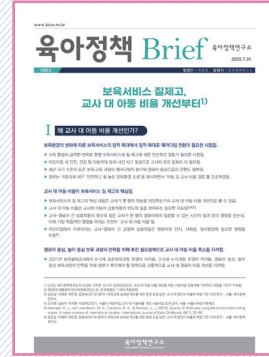


호수	발행일	구분	주제	필자
75호	2023. 3. 31	권두언	고위험 임신의 증가에 따른 의료 지원의 방향 및 사회적 책임	김중임 한국모자보건학회 회장
		집중조명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정책 진단과 발전방안	권미경 연구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인력관리 진단과 개선 방안	김자연 부연구위원
			임신·출산 및 영유아 의료 인프라 추이 분석 및 대응 방안	이재희 연구위원
		정책동향	우리나라 임신·출산 지원 제도 고찰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를 위한 임신·출산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추진 방향 중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연구소 소식	대외홍보팀		
76호	2023. 6. 30	권두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일·육아 병행 지원의 과제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집중조명	비정형 노동자의 일과 자녀돌봄 실태 및 지원 방안	김아름 연구위원
		정책동향	일하는 부모를 위한 돌봄시간정책 동향: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중심으로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연구소 소식	대외홍보팀

호수	발행일	구분	주제	필자
77호	2023. 9. 30	권두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유보통합의 방향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 단장
		집중조명	유보통합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 및 업무 이관 방안	김아름 연구위원
			초기 유보통합 단계에서의 자원 이관에 관한 주요 쟁점	최효미 연구위원
		정책동향	영유아 보육과 교육, 통합 추진 정책	김은설 선임연구위원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연구소 소식	대외홍보팀
78호	2023. 12. 31	권두언	아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기대하며	박상희 소장
		집중조명	2023년 첫만남이용권 이용 현황과 정책 제언	이윤진 선임연구위원
			노키즈존 운영 실태와 향후 과제	김아름 연구위원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이재희 연구위원
		정책동향	'노키즈존'은 차별과 배제의 또 다른 이름: '서울키즈 오케이존'이 아동친화적 사회를 위한 마중물 되길	박희원 서울특별시청 저출생정책추진반 과장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연구소 소식	대외홍보팀		

육아정책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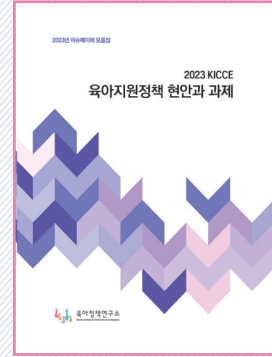
「육아정책 Brief」는 유아교육·보육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현실성 있는 정책제언을 제안하는 정책현안지이다. 2023년에는 영아 유기 예방, 육아비용, 위탁부모, 교사 대 아동비율 등 현안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돕고 관련 정책대응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95호	2023. 7. 31	보육서비스 질제고,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부터	도남희 선임연구위원
96호	2023. 8. 1	위탁가정과 아동을 위한 위탁부모 힘 키우기	배윤진 연구위원
97호	2023. 9. 21	내 아이의 육아비용 얼마나 지원받았나?: 출생코호트별 보편 지원 정책의 수급액을 중심으로	최효미 연구위원
98호	2023. 12. 28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법령시행, 그리고 남은 과제	김자연 부연구위원

Issue Paper

「Issue Paper」를 통하여 단기적으로 부상하는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1	2023. 6. 28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가구, 기관의 환경 변화와 영유아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최은영 선임연구위원
2	2023. 7. 25	영유아 임신부건강지원사업 발전방안	권미경 연구위원
3	2023. 7. 26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변화와 시사점	이정원 선임연구위원
4	2023. 8. 3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의 발달 현황	최은영 선임연구위원
5	2023. 9. 7	초등학교 1학년 부모의 2019 개정 누리과정 및 학교 적응에 대한 인식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6	2023. 11. 30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지원의 개선과제	유해미 선임연구위원
7	2023. 12. 31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	구자연 부연구위원
8	2023. 12. 31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연계 전략	최윤경 선임연구위원
9	2023. 12. 31	양육실태와 정책 수요를 고려한 영아 양육지원 전략 및 정책 과제	이정원 선임연구위원

KICCE Policy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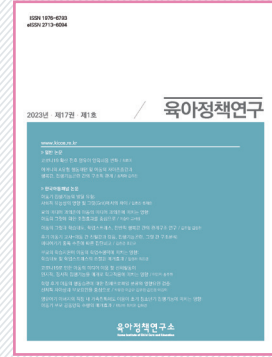
KICCE Policy Brief는 한국의 육아정책 관련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제안을 쉽게 서술하여 해외 유관기관 및 학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영문 간행물이다.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26호	2023. 11. 8	A Review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Policies in South Korea	이재희 연구위원, 권미경 연구위원
27호	2023. 12. 5	The integration policy of ECC and ECE in Korea	김은설 선임연구위원
28호	2023. 12. 29	ECEC Statistics of KOREA: Recent trends of Services, Enrollment, and Workforce	배운진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

육아정책연구소는 2007년부터 학계, 정책 및 현장전문가, 관련 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육아정책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취학 전 영유아와 관련된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과제를 다루는 학술지로, 2013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연 3회로 발간횟수를 늘려 새로운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총 2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호수	발행일	주제	필자
17권 1호	2023. 6. 30	코로나19 확산 전후 영유아 양육비용 변화	최효미(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집행기능곤란 간의 구조적 관계	송재화(전북대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김리진(전북대 아동학과 부교수, 전북대 생활과학 연구소 연구원)
		아동기 집행기능의 발달 유형: 사회적 유능성의 영향 및 그릿(Grit)에서의 차이	임효진(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교수) 류재준(서울교대 교육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모의 미디어 과의존이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그릿에 의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슬아(차의과대 상담심리학과 초빙조교수) 고사랑(경북대 경영학부 조교수)
		아동의 그릿과 학습태도, 학업스트레스, 전반적 행복감 간의 관계구조 연구	김진철(교육부 교육연구관(전남교육청 교육정책 협력관))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부교수)
		후기 아동기 교사-아동 간 친밀감과 갈등, 집행기능곤란, 그릿 간 구조분석: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에 따른 집단비교	김춘경(경북대 아동학부 교수, 장수생활과학연구소) 조민규(경북대 아동학부 시간강사, 장수생활과학 연구소)
		부모의 학습지원이 아동의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태도 및 학업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임정하(고려대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최은경(고려대 대학원 생활과학과 아동학 전공·지속가능생활시스템융합전공 박사과정 수료)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미디어 이용 및 신체활동이 인지적, 정서적 집행기능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민지(연세대 아동·가족학과/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전공 석사과정) 송주현(연세대 아동·가족학과/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전공 교수)

III. 2023년도 주요 활동 | 주요 간행물 |

호수	발행일	주제	필자
17권 1호	2023. 6. 30	학령 후기 아동의 행동습관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영향요인 검증: 신체적 자아상과 부모요인을 중심으로	박유경(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이금규(육아정책연구소 연구인턴) 김유정(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석사수료) 김민정(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이강이(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영유아기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초기 청소년기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 부모 공동양육 수행의 매개효과	한단비(연세대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최지은(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연구교수) 김 현(연세대 아동·가족학과/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전공 교수)
17권 2호	2023. 9. 30	유아의 언어발달과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서미정(제주대 생활환경복지학부 부교수) 고영아(제주대 생활환경복지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어린이놀이터 설치·운영에 대한 관련법의 비교분석을 통한 환경조성 개선방안	김새롬(연세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 김명순(연세대 아동·가족학과 명예교수)
		머신러닝을 활용한 취학 전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예측 모형 및 영향 요인 탐색	김지윤(고려대 교육학과 교육측정·통계전공 박사수료) 안새별(고려대 교육학과 교육측정·통계전공 석사) 홍세희(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학급풍토에 따른 자아존중감, 공동체 의식 및 학교폭력 피해 차이 분석: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김시현(고려대 교육혁신팀 연구교수)
		아동의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 미디어 중독, 사이버폭력 감수성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학대 경험 여부에 따른 다집단 분석	성정혜(해운심리상담센터 원장)
		초등학생의 미디어 사용유형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독서시간의 매개효과 및 미디어 과의존의 조절 효과 분석	하여진(이화여대 일반대학원 강사)
17권 3호	2023. 12. 31	어머니의 자기성찰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간 관계에서 부모공동양육의 매개효과	송재화(전북대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이재희(전북대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김리진(전북대 아동학과 부교수, 전북대 생활과학 연구소 연구원)
		영유아교사의 직무만족과 영유아권리존중 실행 간의 관계에서 조직몰입과 놀이교수효능감의 직렬 매개효과	강수연(동아대 교육학과 박사수료) 조규핀(동아대 교육학과 교수)
		영아기 기질과 어머니 양육의 조화적합성 잠재집단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차이	송지나(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김은지(서울대 협동과정 유아교육전공 박사과정) 박유정(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독서 시간 변화 유형: 부모-자녀 문해 상호작용과 학습수행능력의 연관성 탐색	이상은(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편지애(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최나야(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 부모 애착의 조절효과	홍예지(인하대 아동심리학과 조교수) 안혜령(동아대 아동학과 조교수)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IJCEEP)는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을 전문으로 다루는 영문 학술지로 세계적인 학술전문출판사인 Springer사의 Open Access 플랫폼인 ‘SpringerOpen’을 통해 전자저널로 발간하고 있다. 미국 뉴저지 주립 Rutgers 대학의 국립유아교육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NIEER)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2018년 SCOPUS에 등재되어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23년에는 23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호수	발행일	주제	저자
17(1)	2023. 1. 18	Evaluation of snacks consumed by young children in child care and home settings	Amy Mireault (Department of Applied Human Nutrition, Mount Saint Vincent University) Linda Mann (Department of Applied Human Nutrition, Mount Saint Vincent University) Karen Blotnicky (Department of Business and Tourism, Mount Saint Vincent University) Melissa D. Rossiter (Department of Applied Human Sciences, University of Prince Edward Island)
17(2)	2023. 1. 20	Teachers' agency in the implementation of an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program in schools in Bogotá, Colombia	Alba Lucy Guerrero (School of Education, Pontificia Universidad Javeriana) Marina Camargo
17(3)	2023. 1. 20	Implementation and quality of an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 for newly arrived refugee children in Germany: an observational study	Julian Busch (Faculty of Psychology, Child and Family Research, Ruhr-University Bochum) Thimo Buchmüller (Faculty of Psychology, Child and Family Research, Ruhr-University Bochum) Birgit Leyendecker (Faculty of Psychology, Child and Family Research, Ruhr-University Bochum)
17(4)	2023. 1. 25	"We're going on a virtual trip!": a switching-replications experiment of 360-degree videos as a physical field trip alternative in primary education	Manuel B. Garcia (Educational Innovation and Technology Hub, FEU Institute of Technology) Louis S. Nadelson (College of Education, University of Central Arkansas) Andy Yeh (Faculty of Creative Industries, Education and Social Justice,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호수	발행일	주제	저자
17(5)	2023. 2. 6	The role of digital technologies in supporting quality improvement in Austral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ttings	Maria Hatzigianni (University of West Attica, Alsos Egaleo Campus) Tanya Stephenson (Macquarie University) Linda J. Harrison (Macquarie University) Manjula Waniganayake (Macquarie University) Philip Li (Macquarie University) Lennie Barblett (Edith Cowan University) Fay Hadley (Macquarie University) Rebecca Andrews (Macquarie University) Belinda Davis (Macquarie University) Susan Irvine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17(6)	2023. 2. 8	Quality and educator dispositions for indigenous families in the urban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context: a scoping review	Chelsea Freeborn (University of Alberta;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Alvina Mardhani-Bayne (MacEwan University) Cheyanne Soetaert (MacEwan University)
17(7)	2023. 2. 13	A critical review of the research evidence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refugee context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Katharina Erekly Stevens (Department of Education, University of Oxford) Iram Siraj (Department of Education, University of Oxford) Kimberley Kong (School of Educational Studies, Universiti Sains Malaysia)
17(8)	2023. 3. 15	Determining who is at-risk in the full-day kindergarten program	Suzanne Gooderham (Faculty of Education, University Ottawa)
17(9)	2023. 3. 19	Measuring impact of New Mexico prekindergarten on standardized test scores and high school graduation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Jon R. Courtney (State of New Mexico, Legislative Finance Committee, Program Evaluation Unit) Janelle Taylor Garcia (State of New Mexico, Legislative Finance Committee, Program Evaluation Unit) Jacob Rowberry (State of New Mexico, Legislative Finance Committee, Program Evaluation Unit) Nathan Eckberg (State of New Mexico, Legislative Finance Committee, Program Evaluation Unit) Sarah M. Dinces (State of New Mexico, Legislative Finance Committee, Program Evaluation Unit) Clayton S. Lobaugh (State of New Mexico, Legislative Finance Committee, Program Evaluation Unit) Ryan T. Tolman (State of New Mexico, Legislative Finance Committee, Program Evaluation Unit)
17(10)	2023. 4. 7	Children's attitudes towards aging people-validation of an instrument	Carla Sílvia Neves da Nova Fernandes (Nursing School of Porto (ESEP), Nurse Department) Teresa Moreira (School of Health, University Fernando Pessoa (UFP)) Joana Galvão (School of Health, University Fernando Pessoa (UFP))

호수	발행일	주제	저자
17(11)	2023. 4. 8	The effect of mothers' nutritional education and knowledge on children's nutritional status: a systematic review	Yoyok Bekt Prasetyo (Community Nursing Departement-Faculty of Health Sciences, Kampus II University Muhammadiyah of Malang) Pipit Permatasari (Nursing student at Faculty of Health Sciences, University Muhammadiyah of Malang) Henny Dwi Susanti (Maternity and Child Departement-Faculty of Health Sciences, University Muhammadiyah of Malang)
17(12)	2023. 4. 13	The effect of Universal Teacher-Child Interaction Training on Hispanic teachers' sense of self-efficac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ttings	Alexandra Rivas (Behavior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Angela Mooss (Behavior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hristine Hughes Pontie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itrus Health, Citrus Health Network Inc.) Jackie Romillo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itrus Health, Citrus Health Network Inc.) Emma Muñoz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itrus Health, Citrus Health Network Inc.)
17(13)	2023. 4. 24	Regional and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access to pre-primary education in India: evidence from a recent household survey	Pradeep Kumar Choudhury (Zakir Husain Centre for Educational Studies, School of Social Sciences, Jawaharlal Nehru University) Radhika Joshi (Post-Doctoral Fellow, Indian Institute of Science) Amit Kumar (Zakir Husain Centre for Educational Studies, School of Social Sciences, Jawaharlal Nehru University)
17(14)	2023. 5. 2	Global tracking of access and quality i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Abbie Raikes (College of Public Health, University of Nebraska Medical Center) Nirmala Rao (Faculty of Education, The University of Hong Kong) Hirokazu Yoshikawa (Global TIES, New York University) Caroline Cohrssen (University of New England) Jere Behrman (University of Pennsylvania) Claudia Cappa (UNICEF) Amanda Devercelli (World Bank) Florencia Lopez Boo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Dana McCoy (Harvard University) Linda Richter (University of Witswatersand)
17(15)	2023. 5. 19	Non-indigenous preschool teachers' culturally relevant pedagogy in the indigenous areas of Taiwan	Bi-Ching Chen (Department of Child Care and Education of Chang Gu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17(16)	2023. 6. 10	Socioeconomic and attitudinal differences between service users of private and publi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the Finnish context	Ville Ruutiainen (Department of Education, University of Jyväskylä) Eija Räikkönen (Department of Education, University of Jyväskylä) Maarit Alasuutari (Department of Education, University of Jyväskylä)
17(17)	2023. 9. 19	Embracing team heterogeneity: a case study of the collaborative teaching practice in an international kindergarten in Hong Kong	Jessie Ming Sin Wong (School of Education and Languages, Hong Kong Metropolitan University)

III. 2023년도 주요 활동 | 주요 간행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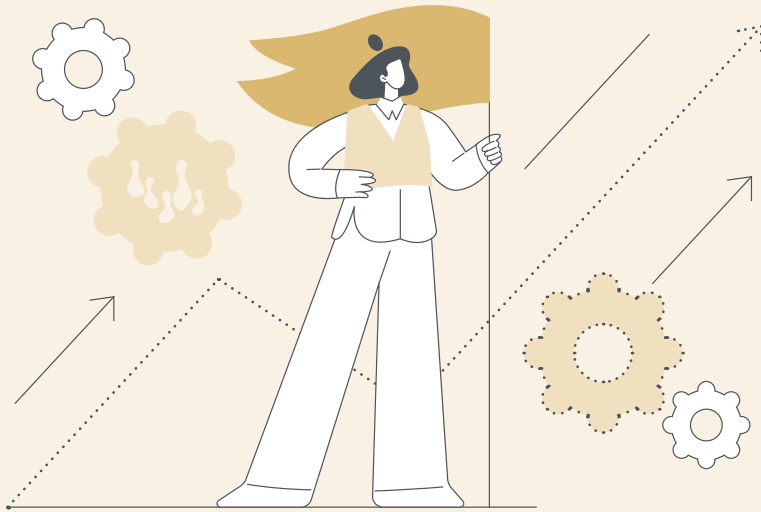
호수	발행일	주제	저자
17(18)	2023. 10. 28	Qualifications and supports for teaching teams in state-funded preschool in the United States	Georgenne G. Weisenfeld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NIEER), Rutgers University) Kate Schellie Hodges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NIEER), Rutgers University) Abby Copeman Petig (Center for the Study of Child Care Employment (CSCCE), University of California)
17(19)	2023. 11. 13	"...Because we do so together": A Mixed-Methods Analysis of Assistant Teacher's Work Environment, Conditions, and Teamwork Experiences	Marisa Schlieber (Center for the Study of Child Care Employment, Institute for Research on Labor and Employ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Tobi Adejumo (Center for the Study of Child Care Employment, Institute for Research on Labor and Employ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Jenna Knight (Center for the Study of Child Care Employment, Institute for Research on Labor and Employ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Enrique Valencia Lopez (Center for the Study of Child Care Employment, Institute for Research on Labor and Employment an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Elizabeth Pufall Jones (Center for the Study of Child Care Employment, Institute for Research on Labor and Employ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17(20)	2023. 12. 8	Pandemic-related challenges for team leadership in ECEC centres in Germany	Katrin Lattner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Magdeburg-Stendal) Petra Strehmel (Faculty of Business and Social Science, Department of Social Work, Hamburg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17(21)	2023. 12. 8	Multi-professional teamwork in Finnish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Kirsti Karila (Tampere University) Päivi Kupila (Tampere University)
17(22)	2023. 12. 11	Innovative ways of handling staff shortages in ECEC? Increasing flexibility in the regulatory frameworks for non-traditional and non-German professional staff qualifications	Mariana Grgic (Department of Children and Child Care, German Youth Institute) Tina Friederich (Department of Social Work, Catholic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17(23)	2023. 12. 11	Team concepts in ECEC: potentials and challenges of heterogeneous staff teams	Pamela Oberhuemer (Thomas Coram Research Unit: IOE, UCL's Faculty of Education and Society, University College London) Birgit Riede (International Centr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CEC), German Youth Institute) Rahel Warnatsch (International Centr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CEC), German Youth Institute) Samuel Bader (International Centr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CEC), German Youth Institute)

P A R T

IV

2024년도 추진계획

영유아와 부모가 행복한
육아정책의 실현을 위해
선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

중점연구사업

-

2024년 사업개요

-

2024년 연구사업 총괄표

2024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경영 목표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연구 선도

국내·외 의제에 대응하는 육아정책연구의 플랫폼 실현

포용적 경영혁신을 통한 기관 위상 제고

연구 사업 관련 주요 국정 과제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상평등 일자리 구현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연구 사업 운영 방향

- 종합적이고 선도적인 육아정책연구를 통하여 육아선진국 도약에 기여하는 연구 기획
- 미래인재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육아정책 연구
- 육아친화적 가정 및 사회 환경 조성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 영유아 자녀양육부모의 다양한 육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 영유아 행복과 발달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 및 정책 연구
- 유아교육·보육 재정 데이터 구축 및 운영체계 수립 연구
- 영유아 보육·교육통합 추진 관련 연구
- 재난상황에서 기인하는 육아관련 환경 및 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구축
- 정부부처, 학부부, 현장관계자 등 각계의 요구 반영을 위한 소통창구 다양화 및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연구사업 발굴·추진
-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범위의 지속적 확대
- 연구윤리 및 연구절차 준수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여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중점연구사업

중점연구사업 선정기준

- 연구소 설립 목적 부합성
-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관의 연계성(시의적절성, 정책중요도, 정책활용성 및 기여도)
- 기관장 경영목표와의 연관성

중점연구사업명	요약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의 대상이 기존 학령기에서 영유아기까지 확대되어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영유아들이 발달 특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에의 노출은 유아의 인지, 언어 및 뇌 발달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정서, 사회, 행동 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관계의 어려움, 사회적 미성숙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함. ○ 과도한 사교육, 특히 학습과 관련된 사교육은 학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유아의 행복을 저해하고 사교육을 받는 유아의 인식이 유아의 행복과 관련 있음을 부모가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의 사교육이 제 발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사교육 경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영유아기 사교육의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대국민 캠페인을 통한 학부모와의 소통을 추진하고자 함. 								
육아 분야 디지털 전환 이행 현황 및 대응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과 보육, 돌봄 및 육아지원 분야 전반에서도 정책의 이행과 전달체계, 관련 통계, 특히 수요자와의 접점에서 디지털 기반의 정책이행 과정과 관련 데이터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어 있음. ○ 전 사회적으로 디지털전환이 당면과제가 되는 현 시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대비 육아와 취학 전(후) 교육·보육·돌봄 영역의 디지털 전환과 대응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음. ○ 이 연구는 중앙-지자체 및 다부처 사업간에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육아분야 정책의 디지털 이행과 플랫폼 구축의 현황을 살펴보고(중간점검), 효율적인 디지털 이행 및 전환 작업과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미래 지향적 디지털 기반 구축을 위한 대응 방안 및 주요 고려사항을 살펴보고자 함. 								
코로나 세대 (Covid-Generation) 아동의 발달 추적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연구는 태내기부터 팬데믹을 경험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성장·발달, 가구의 돌봄, 교육·보육 현황과 변화를 다중 코호트 방식의 종단 추적(5개 연령, 5년간 추적)을 통한 실증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팬데믹의 영향을 분석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다중 코호트 방식의 종단 추적(5개 연령, 5년간 추적)을 통한 실증 데이터를 누적적으로 구축하여 팬데믹의 중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학술적, 정책적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횡·종단 데이터를 제공함.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Ⅲ): 장애위험 영유아 선별 도구 표준화 및 지원 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4차년도 연속과제로,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임. ○ 장애 판정을 받지 않았으나 부모나 교사가 인지하기에, 언어, 인지, 신체적 측면의 발달이 또래보다 지체된다고 판단될 때 해당 영유아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조기 개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확인하고 제공 방안을 모색함. ○ 연차별 주요 연구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년차(2022)</td> <td> 실태조사 및 조기선별 도구 개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조사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교사용 검사도구 및 안내 자료 개발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년차(2023)</td> <td> 부모 선별도구 개발 및 가족 지원 방안 도출 장애위험 영유아의 부모가 조기발견할 수 있는 부모용 도구를 개발하고, 담임 교사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 제안. 가족 역량 지원을 위한 인식 개선 방안 제시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년차(2024)</td> <td> 부모-교사 조기선별도구 표준화 및 지원협력체계 강화 방안 1차년도 개발한 교사용 조기선별도구와 2차년도 개발한 부모용 조기선별도구의 표준화를 실시하며, 장애위험 영유아 담당 교사, 영유아 상담 및 지원인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 진행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년차(2025)</td> <td> 가정연계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 장애위험 영유아 부모 양육 역량 강화를 통한 가정연계 및 인식 개선 캠페인 </td> </tr> </table>	1년차(2022)	실태조사 및 조기선별 도구 개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조사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교사용 검사도구 및 안내 자료 개발	2년차(2023)	부모 선별도구 개발 및 가족 지원 방안 도출 장애위험 영유아의 부모가 조기발견할 수 있는 부모용 도구를 개발하고, 담임 교사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 제안. 가족 역량 지원을 위한 인식 개선 방안 제시	3년차(2024)	부모-교사 조기선별도구 표준화 및 지원협력체계 강화 방안 1차년도 개발한 교사용 조기선별도구와 2차년도 개발한 부모용 조기선별도구의 표준화를 실시하며, 장애위험 영유아 담당 교사, 영유아 상담 및 지원인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 진행	4년차(2025)	가정연계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 장애위험 영유아 부모 양육 역량 강화를 통한 가정연계 및 인식 개선 캠페인
1년차(2022)	실태조사 및 조기선별 도구 개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조사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교사용 검사도구 및 안내 자료 개발								
2년차(2023)	부모 선별도구 개발 및 가족 지원 방안 도출 장애위험 영유아의 부모가 조기발견할 수 있는 부모용 도구를 개발하고, 담임 교사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 제안. 가족 역량 지원을 위한 인식 개선 방안 제시								
3년차(2024)	부모-교사 조기선별도구 표준화 및 지원협력체계 강화 방안 1차년도 개발한 교사용 조기선별도구와 2차년도 개발한 부모용 조기선별도구의 표준화를 실시하며, 장애위험 영유아 담당 교사, 영유아 상담 및 지원인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 진행								
4년차(2025)	가정연계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 장애위험 영유아 부모 양육 역량 강화를 통한 가정연계 및 인식 개선 캠페인								

2024년도 사업개요

기관고유사업

기본연구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도시 및 농어촌 등 특수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치원 설립 개선 방안 연구
	인구변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 신규택지개발 등 수요가 충분한 지역에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신·증설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며, 한편으로는 인구 부족으로 유치원 설립이 어려운 경우 대안적 유아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특수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치원 설립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 개선 정책 연구임.
2	공공형어린이집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유보통합에 대비한 역할 정립 중심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2011년 도입된 이후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그간 성과를 평가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임. 2022년부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어린이집 평가제가 2024년 6월부터 개편됨에 따라 (재)지정기준을 개정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아울러 보육업무가 2024년 7월부터 교육부 및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의 필요성 및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함.
3	유치원-학교 간 연계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지역소멸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통합·운영의 실현 가능성 탐색과 유-초등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로 다양한 조사에 기반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유치원-학교 간 연계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함.
4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 방안
	저출생 추세와 함께 변화된 양육에 대한 가치관, 문화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육아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5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
	본 연구는 정부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정책 강화 기초 속에서 산발적으로 도입된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를 성찰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은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해 부모 및 아동의 육구와 제도 간 적합성을 고려하여 현금급여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음.
6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사교육의 대상이 기존 학령기에서 영유아기로까지 확대되어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들이 발달 특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에의 노출은 여러 영역의 발달상 영향을 미침. 과도한 사교육, 특히 학습과 관련된 사교육은 학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유아의 행복을 저해하고 사교육을 받는 유아의 인식이 유아의 행복과 관련 있음을 부모가 이해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발달상의 인지, 정서·사회, 행동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7	육아 분야 디지털 전환 이행 현황 및 대응 방안 연구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보육-돌봄의 다방면에 걸쳐 다부처 정책과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육아분야 디지털 전환의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이 지향하는 육아분야 디지털 기반의 미래지향적 과제를 도출함. 육아분야 공-사 디지털기반과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요소와 미충족 분야를 파악하고, 미래세대 아동 및 MZ세대 부모가 필요로 하는 지원과 육아정책 분야의 상호소통과 접점을 수요자 관점에서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함.
8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에 대한 혐오와 차별 현상의 진단을 중심으로
	노키즈존 등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현상과 그 원인을 규명하여 아동출입 금지업소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외 차별 현상에 대한 정책적 개입 범위 및 수준을 도출하는 등 대응 과제를 마련하고자 함.

연구지원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KICCE 육아정책토론회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육아정책 현안 발굴,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등 육아정책 추진의 실효성 및 현장 적합성을 제고함.
2	국내·외 유관기관 교류 및 협력
	「아시아지역 육아정책연구의 선도기관(The ECEC Hub of the Asia region)」이라는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하여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한 정책연구사업의 선진화와 전문화를 도모하며, 국제기구 및 유관해외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하여 기관의 해외 인지도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 육아정책관련 국제비교 협동연구 및 사업을 개발하고 기획함.
3	국내·외 육아연구 동향 및 정책 정보 수집 분석
	국내외 육아정책 최신 연구동향 및 관련 문헌과 전자 정보, 자료를 수집·분석·보급함으로써 국내 육아정책 자료의 데이터 뱅크 역할을 수행함.
4	연구기획사업
	연구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사회적 영향력 증대, 육아정책 전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및 책무성 확보를 위해 기관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경영목표 추진·관리, 기본·수탁 연구과제 운영·관리·지원, 연구사업 수요조사 및 과제 발굴, 연구사업 관리 및 평가업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계약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한 연구사업의 윤리성·공정성 확보 추진, 기관 자체평가 연구, 산·학·연과 연구협력 등을 추진함.
5	연구성과 확산 및 기관 홍보사업
	연구사업 결과를 다양한 자료로 산출하여 정부부처, 육아관련 기관, 언론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정보를 공유함.
6	학술활동 및 저널 발간
	과제의 질 제고를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 국내외 학술지 발간사업을 통해 직원의 전문성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학술정보자료의 지속적 관리와 공유 등을 통하여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위상 제고를 도모함.
7	연구지원전산 운영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정보화 소프트웨어 및 전산관련 물품 등 구매 지원 및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함.
8	청년인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년인턴 운영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배정된 예산을 활용하여 청년인턴을 채용 및 운영·관리하며 일자리의 직접 제공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의 부분적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취업준비자 역량 강화로 경쟁력 있는 우수 노동력 양성을 유도함.

2024년도 사업개요

일반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p>유아교육·보육 분야 주요 정책의 연도별 실행과 효과성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 수행의 유의한 성과와 함께 계획 대비 미비한 부분 및 미이행 지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개선과제와 정책의 우선순위 및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함.</p> <p>국정과제 이행수준에 대한 연도별 진단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평가와 증거기반의 정책분석을 실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개선의 방향성을 제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분석과 심층분석으로 구분하여 진행 - 2024년 심층분석 주제(안): 인구위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유아교육·보육 정책 성과분석(국제지표를 중심으로)
2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III): 장애를 가진 부모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
	<p>모든 가정에서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육아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소외되거나 돌봄이 취약한 환경에 놓일 수 있는 돌봄취약·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이를 위해 설계된 본 연구과제는 총 5개년의 연속과제로 기획되고 추진 중에 있으며, 3년차 연구에 해당하는 본 연구에서는 장애를 가진 부모의 양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p> <p>본 연구에서는 돌봄취약·위기가정 중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마련하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부모를 위한 육아지침서를 개발하고, 지원체계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p>
3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II)
	<p>본 연구는 총 3개년 연구 중 2차 연도 연구로서, 1차년도에 개발한 성과지표에 준하여 정부가 1단계에서 계획한 유보통합 추진 이행 정도를 진단하고, 1차 연도에 이어 시도교육청·시도청의 유보통합 사례 분석 및 국외 사례 고찰을 통해 유보통합 추진에 있어 성공요인과 저해요인을 도출하여 유보통합 정책 안착을 위한 성과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p>
4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p>전년도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막내자녀 연령 기준 1~6세 영유아 가구)와 신생아 표본 추가 구축, 부스터표본(부가조사) 등을 통해 영유아 가구의 소득, 소비 지출 전반과 양육비용, 정부 지원금 수혜(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등), 유연근로 및 육아휴직 활용 등 육아시간 지원 정책 활용 현황,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등 육아 지원 정책과 연계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생산·구축하여 정책 및 여타 연구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p> <p>주요 연구 내용은 매해 반복적으로 지속 조사하는 본조사(기존 설문 문항 및 매년 주요 정책 변화 및 사회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시의 적절하게 추가 구성)과 부스터표본(충분한 표본 확보를 통해 대표성 있는 연구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 조사로 구성됨.</p>
5	코로나 세대(Covid-Generation) 아동의 발달 추적 연구(I)
	<p>본 연구는 태내기부터 팬데믹을 경험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성장·발달, 가구의 돌봄, 교육·보육 현황과 변화를 다중 코호트 방식의 종단 추적(6개 연령, 5년간 추적)을 통한 실증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팬데믹의 영향을 분석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태내기부터 코로나를 경험한 아동의 성장·발달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연령 코호트를 구축하여 대규모 횡단·종단자료를 구축하고, 영향력을 장기간 추적함으로써 아동의 전생애적 발달에 관한 학계 연구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실증 자료를 제공함.</p>

번호	과제명
	개요
6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III): 장애위험 영유아 선별 도구 표준화 및 지원 모델 개발
	본 연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4차년도 연속과제의 3차년도 연구로, 1차년도에 개발된 장애위험 영유아 교사용 선별도구, 2차년도에 개발된 부모용 선별도구의 전국표준화를 실시하고, 선별 도구뿐 아니라 부모 및 교사용으로 개발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지역사회 내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시범 적용해 보고자 함.
7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4 (한국아동패널 II)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한국의 유일한 신생아시기부터의 장기 종단연구로서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을 추적·조사하여 아동의 성장에 따른 주요영역별 자료들을 국가수준에서 수집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08년생을 대상으로 2008년 1차 조사가 실시되어 2024년에는 17차 조사를 수행함. 아동, 보호자,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 부모, 가구, 학교·사교육, 지역사회, 정책 특성을 조사하며, 2024년은 패널아동이 청소년후기에 진입하는 시점으로 심층조사 병행예정임.
8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4 (Korea ECEC Panel Study)
	본 연구는 태아기부터 영유아,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의 양육, 기관에서의 교육·보육 경험과 환경적 영향, 부모의 내·외재적 요인 등 생애 초기 성장과 관련한 횡단·종단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을 지님. 2024년도 연구를 통해 만2세 영유아의 발달 특성, 부모 및 가구 특성, 지역사회 특성, 보육 및 육아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아동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학문·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육아지원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함.
9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등 운영 유지보수
10	전산실 운영 사업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원활한 하드웨어 운영을 위한 온도 유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 유지 정보자료실 운영 유지

2024년 연구사업 총괄표

기본

번호	연구과제명
1	도시 및 농어촌 등 특수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치원 설립 개선 방안 연구
2	공공형어린이집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유보통합에 대비한 역할 정립 중심으로
3	유치원-학교 간 연계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지역소멸위험지역을 중심으로
4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 방안
5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
6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7	육아 분야 디지털 전환 이행 현황 및 대응 방안 연구
8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 과제: 아동에 대한 혐오와 차별 현상의 진단을 중심으로

일반

번호	연구과제명
1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Ⅱ):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2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Ⅲ): 장애를 가진 부모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
3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Ⅱ)
4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5	코로나 세대(Covid-Generation) 아동의 발달 추적 연구(Ⅰ)
6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Ⅲ): 장애위험 영유아 선별 도구 표준화 및 지원 모델 개발
7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4 (한국아동패널 Ⅱ)
8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4 (Korean ECEC Panel Study)

2023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3 Annual Report

발행일 2024년 7월

발행인 황옥경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전 화 02 398 7700

팩 스 02 398 7798

www.kicce.re.kr

편집·제작 유월애 02 859 2278

본 간행물의 무단 판매 및 복제를 금함.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Tel. 02 398 7700 Fax. 02 398 7798 www.kicce.re.kr